

보육활동의 길잡이

# 우리네 아이들

97.5

저/역/자/표/목/작/△/원/압/표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3-64 여생당4의 집 3층 (우) 100-631 ☎ 02/275-65056 FAX 275-6506

## “보육시설 운영에 필요한 정보, 어디서 얻습니까?”

### 정보 제공

- PC통신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제공하여 보육사업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지지를 높이는 데 기여합니다.

### 시설 홍보

- 현재 전국의 5천여개 어린이집, 놀이방이 PC통신으로 소개되고 있습니다. 시설명, 주소, 전화번호 등을 적어 보내주시면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에 광고해 드립니다.

### 교사 알선

- 선생님을 구하려는 시설과 보육사업에 함께 하실 예비 선생님들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연구소로 직접 신청하거나 PC통신을 이용하여 원하는 분들을 만나십시오.

### 연구 개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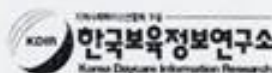
- 보육사업의 전문 영역 연구와 정보개발을 통해 더 나은 보육시설 운영과 보육정책 발전을 꾀하고자 합니다.

###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이용

- 천리안 : GO BABY
- 하이텔 : GO BEBO
- 유니텔 : GO BEBO



본 화면은 하이텔 제공 예능입니다.



서울 중구 북성동 18-27 대학문화원 426호 · TEL: (02)268-3954 / 271-1547 ~ 8 / FAX: (02)271-1548 · ID: KOIRBEBO(하이텔) ZPIBABY(천리안)

보육활동의 길잡이

# 우리네 아이들

97.5



자/역/사/외/탁/악/△/연/합/회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우) 100-391 ● (02)275-8505~6 FAX: 275-8506

# 우리네 아이들

97.5월호

<통권 50호>



<표지사진>

어느 곳이건 아이들이 있는 곳  
은 놀이터가 된다.  
황태를 말리는 바닷가 역시 어  
른들에게는 한숨 쉬인 일터겠지  
만 아이들에게는 마냥 드넓은 놀  
이터일 뿐이다.  
그런 아이들의 모습에서 잊고  
지냈던 가슴속 동심을 다시 꺼  
내본다.

(사진 / 부산 아기자람터 박찬주)

## 읽어라 생각어라 / 3

적박한 사회환경에 처한 어린이를 올바르게 돕자 이영목

## 기획특집 / 5

① 유아교육개혁은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② 보육교사가 보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개혁안  
김설이

## 인권보육 / 10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 스즈키 쇼조

## 보육정책 / 15

① 보육사업 활성화 제언 회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② 보육사업 정책방향 신현수

## 간부연 / 20

'97 제1회 지도력 강화를 위한 워크샐을 마치고 편집부

## 통신이야기 / 23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찾아가기 go go go... 이강선주

## 현장교육 / 31

아이의 눈으로 본 어린이집의 적응 이윤경

## 현장소식 / 33

①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안경자

② 광주 '누렁소'를 아시나요? 김영금

## 좋은 그림책 소개 / 35

『바닷물고기 덩치』 박은하

# 짜·임·새

## 건강만들기 / 37

① 보육시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인과  
의료인의 만남 편집부

② 어린이집 구급함 꾸리기 김유호

## 국제교류 / 45

이주영 일본교사연수를 마치고

## 새로운 출발 / 49

이영숙 ① 농촌보육현실, 우린 이렇게 시작했다

김동준 ② 새싹들의 방, 영아전담보육시설로 바뀌었습니다

## 육아일기 / 52

나은미 유빈이의 첫생일을 보내며

## 세상일기 / 53

위양자 굶음과 허상

## 책아소별곡 / 55

아기자람터에서 있었던 일

## 오서각에서 온 소식 / 57

변미양 내 이름은...

## 오빠들의 목소리 / 58

지연 뿌듯한 휴가를 보내면서

## 보육계풍광 / 59

## 소식과 소식 / 60

## 편집부에서 / 63

1997년 5월호(통권 50호)/첫발행  
1992.5.25./피넛 지역사회탁아소  
연합회/피넛이 남미영/뽕은이 박경  
애, 강예란, 정순옥/피넛날 1997년  
5월 10일

일하며 생각하며

.....

## 적박한 사회환경에 처한 어린이를 올바르게 돕자

이명묵(도서출판 '인간과 복지')

때마다 오월이 되면 쓸쓸하기만 하다. 어린이와 가정을 주제로 많은 논의와 행사가 있지만 그런 것들이 의례적이 된지 오래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와 국민들이 어린이의 소중함과 가정의 가치를 소홀히 하고 지내는 가운데, 특히 어린이의 문제에 관해선 그 장래를 생각할 때 답답하기 그지없다.

오늘의 어린이가 잠깐이면 청소년이 되고, 후딱 지나면 성인이 되어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우리나라의, 또 인류역사의 한 분자가 된다. 당연히 우리 사회는 20년 50년 앞으로 다가올 미래사회를 어린이들에게 제시하고 그때 그들의 구실을 알려주고 지금은 그들이 그것을 건강하고 충실히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무엇을 도와주고 있는가?

대한민국 대부분의 학부모가 주었다고 하고 대부분의 교사가 안받았다고 하는 촌지는 지금 당장 어린이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우리 사회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지고 있다. 학교는 공부를 안하거나 못하는 아이들을 문제아다 비행청소년이다 하여 방치하거나 자르기에 바쁘고, 무단결석이나 가출한 학생을 기다리고 찾아나서기보다는 부모에게 자퇴원서를 강요하고 있다. 부모는 부모대로 증심을 잡지 못하고 아이들을 과외와류에 몰아넣고 있다. 백혈병 소아암 심장병으로 수많은 어린 생명들이 죽어가고 있지만 이 나라는 팔짱을 끼고 민간의 모금운동만 지켜보고 있으니, 학교에서 수서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얼마나 아니꼬울까?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모두 공범이 되어 어린이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짙은 현실에서 우리 사회는 어린이들에게 미래의 비전도 제대로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의 정보화 사회는 20년 30년 뒤에 종말을 고하고 문화시대를 준비케 도와주지를 못하고 있으니 이를 두고 한 치 앞을 내다보지 못한다 이룰 것이다. 지금의 정보화 사회는 30대와 40대가 당면한 상황이고, 이

시대 어린이들은 정보화사회는 개념파악 정도만 하고 그들이 당면하여 절정하고 책임져야 할 문화시대 상황을 대비하여야 한다. 그 문화시대란 어떤 것인가? 정보화시대에서 그럴싸하고 복잡하게 보였던 대부분의 것들은 아주 쉽게 조작되는 컴퓨터가 칩처럼 해결해줄 것이고, 문제는 컴퓨터를 둘러싼 기계적 정보에 의존하고 이기적 사고와 물질노예 습성을 가진 사람은 도태될 것이고, 인류문명에 대한 시공의 통찰과 문화에 관한 풍부한 감성과 생활에 대한 깊이 있는 철학을 바탕으로 인간에 대한 애정과 사회에 대한 창의성을 발휘하는 사람이 우리 사회의 지도자가 되거나 중요한 일꾼이 될 것이다.

이와같이, 우리는 어린이들에게 적박한 사회환경을 조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린이시절과 청소년시절의 대부분을 보내는 학교가 더이상 이들에게 지옥이 아니었으면 좋겠다. 죽어가는 어린 생명을 지켜주는 대한민국 정부이었으면 좋겠다. 어린이들이 자신의 어른모습을 그리면서 그때를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그러려면 우리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은가? 부모와 학교와 사회와 국가가 대오각성하여 정신차려야 한다.

우리가 어린이를 키우는 것은 미래를 가꾸는 것이다. 어린이를 돌보는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에게 그러한 능력이 있어야 하고 각 어린이집은 그러한 비전을 갖고 운영해야 한다. 노인을 봉양하는 사람에게는 과거지향적인 사고가 요구되는 반면에, 어린이를 양육하는 사람에게는 미래지향적인 사고가 요구된다. 어린이집의 종사자들이 이 시대적 구실을 잘 해낼 수 있다면 그 집의 아이들은 행복할 것이다. 지금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아이가 곧 어른이 될 시대는 정보화 시대가 아니고 문화시대이고, 문화란 음악이나 미술이나 문학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생활의 진선미를 추구하는 개념이고 공동선을 추구하는 사회 움직임의 질이다. 이러한 시각에서 어린이집 종사자들의 입장을 진단해 보자.

『학교에서 수서로 하는 '국기에 대한 맹세'가 얼마나 아니꼬울까? 가정과 학교와 사회가 모두 공범이 되어 어린이를 학대하고 있는 것이다

...

어린이들이 자신의 어른모습을 그리면서 그때를 건강하고 합리적이고 행복하게 준비할 수 있는 우리 사회가 되길 바란다.

최근 '대통령 자문 교육개혁위원회(이하 '교개혁위')'에서 '유아교육 개혁방안'을 제시한 바 있습니다. 이는 우리나라가 OECD 가입국 중 유아의 취원율이 최저수준이라는 국제적 수치스러움을 절감하면서 교육에 있어서 출발점 평등의 원칙에 입각하고자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주소와 문제점을 진단하고 몇 가지 경로의 대안

이 상정되었다고 합니다. 어떤 동기에 의해서든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 이 시점에서 유아교육에 대한 총체적 점검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입니다. 본회는 교개혁위에서 제시한 개혁방안을 보면서 궁극적으로는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분화되어 있는 유아교육이 일원화되어야 함이 마땅하다고 보나, 현재 시점에서 볼 때 몇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기에 본회는 유아교육방안에 대한 의견개진을 하고자 합니다.

## 1. '유아교육 개혁 방안'의 문제점

### 기획특집 1

## 유아교육개혁은 모든 아이들이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유아교육방안에 대한 본회의 의견-

이 글은 본회의 정책개발위에서 논의, 정리한 것으로 교육개혁위원회, 각 정당 교육위원 등에게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지난 4월 27일 유아교육개혁위원에 대한 토론회때 지역의 임원들과 공유한 내용입니다.

### 1) 유아교육을 바라 보는 시각의 문제

교개혁위가 파악한 유아교육의 대상과 실행기관을 보면 '유치원'에서 교육받고 있는 만3세아부터 5세아까지의 아동으로 제한하여 파악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인식에 의하면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혜택을 입는 아이들은 전체 27%로 전적으로 유치원 취원율이 곧바로 적용될 것이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판단이 올바른 것인가. 합법적, 체계적 통로가 아니더라도 우리 아이들은 어떤 형태, 어떤 방식, 어떤 기관에 의해서든 유아교육을 경험하고 있다는 것이 보다 솔직하게 현실을 파악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국가가 일정한 조건을 제

시하고 나름대로 예산을 투여한 큰 골격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이 있다면 사실상 유아교육의 긴 역사를 통해 국가의 무관심 속에서도 실제로 아이들의 교육을 담당한 기관은 사설학원이나 선교원 등이 될 것이며 이 기관들이 감당한 역할이나 존재가 현실과악에 정확히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 본다.

이러한 기관이 갖는 운영의 파행성이나 교육서비스의 질적 문제 여부를 단지 긍정적으로만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교육이 진행된 것이고 특히 국가정책의 공백 속에서 나름대로 아동이나 부모의 욕구(특히 도시 저소득층)에 부응하여 운영되었다는 점에서 그 정확한 실체와 내용을 파악해 내야 사실상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주소를 진단할 수 있게 된다는 점이다. 사설학원에 대한 정확한 실태조사는 매우 어려운 일일 수 있겠으나 기왕에 거시적 안목 속에서 국가의 유아교육 개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한다면 보다 정확한 실태파악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 2) 유아교육기관의 재분류

따라서 유치원에서 실시하는 교육이 유아교육이 아니라 큰 울타리에서 볼 때, 현재 유아들이 모여있고 교육이 실시되는 곳을 유아교육기관이라고 범주를 넓힐 때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현주소는 대략 3부분 1)유치원 2)보육시설 3)사설학원으로 볼 수 있겠으며 기관이 어느 부처에 있든, 어느 정도의 질을 담고 있든 간에 실체를 인정하며 이들 기관의 구체적 서비스 내용과 평가, 이용아동수에 대한 정확한 파악에서 개혁논의가 재출발되어야 한다고 본다. 동시에 부모를 중심으로 한 유아교육에 대한 정확한 욕구조사가 공법위하게 실시되어 대안의 기초로 삼아야 할 것이다. 만약 이러한 토대없이 전체 틀을 재구성하려는 개혁안이라면 또다시 이용자와 시설들에게 혼란만 야기할 뿐이라 보여지며 만약 거시적이고 근본적 차원에서 토대가 될 선행조사가 불가능하다면 이번의 개혁안은 유치원에서 하는 유아교육의 개혁안으로 한정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인식 하에 정확한 근거없이 다소 경험적 차원에서 정리해 본다면 우리나라의 유아교육기관의 구분과 특징,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고 하겠다.

#### ① 유치원

관공-아동중심  
국공립-군 이하(농촌), 저렴한 비용  
사립-중산층 이상 지역, 높은 교육비,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

#### ② 보육시설

관공-아동과 부모요구 통합적 고려  
국공립-대도시 저소득층 밀집지역, 비교적 저렴한 교육비, 비교적 양질의 서비스  
민간(개인)-저소득 및 중산층지역  
높은 보육료, 질 편차

#### ③ 사설학원

개인-도시 저소득층 및 중산층지역, 저렴한 비용, 질 편차(대체적으로 질 저하)

전체시설의 이용아동수를 잘 파악하지 못하였으나 대체적으로 대부분의 유아들이 이러한 시설을 이용하고 있을 것이라 판단되어 개혁의 방향은 새로운 시설의 설치보다는 기존시설을 보다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저렴한 비용을 감당할 수 있도록 유인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것이다.

### 3) 교육과 보호의 통합적 기능이 아닌 교육 중심의 보호보조(선택)의 관점

개혁방안에 의하면 공교육 체제 확립의 방향을 3세 이상 취학전 유아들에게 교육과 보호서비스를 함께 제공하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으나 실제 구체적 개혁안에 의하면 각각의 내용을

제공하는 부처 및 담당자들이 분리되어 있다. 이는 교육·보육 현실을 고려한 처사라고 보여지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학교체제 안에서 중심적 기능은 교육이고 보호 기능은 보조적이고 덜 중요한 기능으로 상정되어 있어서 사실상 보호기능에 대한 고민과 대안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방안은 결국 새로운 개혁안이 이전 새마을 유아원의 실적을 고스란히 담보하고 있는 것 이상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4) 유아교육자 양성 기관 및 교육내용의 문제점

3)과 연결된 것으로 실제 교육개혁안의 내용에 의하면 교육은 유아교육 전공자가 보육은 보육 전공자가 역할분담 체계를 갖고 실시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교사들 각자의 역할이 다르다는 것, 또 각 교사들이 한 틀에서 통합적 서비스를 제공하기에는 서로 양성된 경로가 다르다는 것을 입증하는 것(최소한 현시점에서)이어서 내용상 문제가 있으며 더군다나 교육기능은 교육부가 보호기능은 복지부가 담당 관할하려는 구상이어서 실현가능성이 희박하거나 최소한 어느 하나가 매우 약화될 수밖에 없다고 판단된다.

### 5) 행정부처간의 협조관계에 대한 안이한 낙관

가장 염려되는 것은 부처간의 협조체계를 너무 쉽게 낙관한다는 점이다. 한 시설의 운영을 두 부처의 긴밀한 협조 속에서 진행된다는 것은 고도의 세련된 행정능력을 수반하는 기술을 요할텐데 우리나라 행정현실 속에서 볼 때 전혀 실현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것이 솔직한 것이고 따라서 이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대안이 될 것이다. 이를 가능케 하려면 어느 한 부처로 통합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우리의 경우 교육부도 복지부도 교육과 보호를 총체적, 자기 완결적으로 감당할 능력이 결여되어있다고 보기에 이의 통합을 위한 노력은 장기적 차원에서 마련되거나 아니면 각자의 역할과 경로를 인정하며 상위의 공동협의 체계를 구상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라 본다.

### 6) 재정적 문제

개혁안을 상징하게 된 동기 중 하나는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에 따른 정부예산확보 의지에 대한 지지인 것 같고 이의 조속한 실현을 위한 내부 준비인 것 같다. 이는 긍정적인 것이고 너무 늦은 감도 없지 않지만 매우 고무적인 현상이다. 그러나 정부의 예산확보 의지 때문에 조속한

유아교육기관 통합을 제기하는 것은 꼭 맞는 논리는 아니다. 유아를 위한 국가예산확보를 위해서는 오히려 몇 개의 부처가 각각의 노력에 의해 보다 많은 것을 확보하는 것이 더 효과적일 수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실제로 1991년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국가보육예산이 증가하였고 그것이 일선 유치원 운영자에게 일정한 문제인식을 안겨 하면서 유아교육의 공공교육화 및 예산확보에 어떤 식이든 영향을 끼쳤으리라 보기에 오히려 다른 부처에 소속되어 경쟁적으로 예산확보 노력을 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이고 능률적인 방법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 2. 제언

### 1) 이번 제기된 교개위의 유아교육 개혁 방안은 모든 유아들이 양질의 보호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가야 한다.

이는 공급자 중심이 아닌 유아교육기관을 이용하는 모든 수요자 중심의 정책이 되어야 하고, 궁극적으로 유치원과 보육시설로 이원화되어 있는 유아교육의 체계가 일원화되어야 한다.

그러나 양체제 모두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현

실에서는 장기적으로 일원화의 목표를 가지고 진행이 되어야 하되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

교개위의 안을 볼 때 궁극적으로 일원화를 지향하는 것으로 보여지기는 하지만 조건이 성숙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외형상의 통합은 무리를 가져올 수 있다.

유치원도 현재 그 내용이 천차만별이고 보육사업 또한 상대적으로 체계를 정비해나가고 있는 시점이기에 양체제가 서로의 질을 고양시킬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즉, 유치원이 보호의 기능을 성숙시키고, 보육시설도 질의 내용을 담보해내는 과정을 거치면서 질에 있어서 일정수준에 도달할 때까지 자체적인 내용정비의 시기가 필수적이다.

### 2) 양체제의 내용의 공조를 위한 조정위원회 두어야 한다.

이 위원회의 역할과 기능은 관련법에 대한 검토 및 대안 마련, 유아교사보육교사의 양성기관에 대한 커리큘럼진단 및 대안 마련, 유치원·보육시설·사설학원의 실태 및 특성 파악, 이용자들의 욕구조사, 운영자들의 욕구조사 등을 전국적으로 광범위하게 실시, 파악한 후 거시적인 대안을 제안하는 것(형식과 장기적인

목표설정을 포함하여) 등이 될 것이며, 이러한 논의과정 중에 실제로는 각 부처간 또는 각 시설간의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나가기 위해 공동의 프로그램 실시, 통합보수교육 실시, 공동세미나적극지원, 각부처에서 발간된 교재등을 효율적이고 지속적으로 체계적으로 교류하여 통합의 분위기를 조성하고, 논의의 장을 열어놓으며, 동질감을 조성해 나가는 것이 마련되어야 한다.

또한 현재 시점에서 발생할 수 있는 설치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미 보육시설이 설치되어있는 저소득층지역인 경우 설치에 대해 미리 조정할 수 있는 조정위원회는 필수적이다.

### 3) 본회는 5세아 무상교육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지지를 하며, 앞으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식의 측면에서나 정책의 추진에 있어서 확대되어야 할 것이다.

양체제가 양질의 유아교육기관으로 정비되는 과정에 있어서 모든 아동에 대한 형평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무상교육이 진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측면, 5세아 무상교육이 전면에 대두되면서 양적확대에만 치중될 수 있는

우려가 있기에 5세아 무상교육은 공공교육체계 확립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하며 기존의 양화보다는 질을 향상시키는 방향이 되어야 하며, 사립유치원의 무분별한 확대보다는 학교병설 유치원의 확대방안을 고려해볼 것이 바람직해졌다.

### 4) 교육부와 복지부는 양체제의 제대로 된 기능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상에서와 같이 양체제의 정비가 조건확보를 위해 필요한 시점이라고 볼 때, 교육부 중심의 유치원이든 유아학교든 형식이 어떠한 적극적인 정책지원이 수립되어야 함과 동시에 새로이 제안되는 체제로 편입되지 못하는 아동에 대해서도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이 이루어져 양체제가 공히 질의 고양을 이루어 낼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복지부는 보육시설의 교육과 보호를 통합한 기능을 강화해내기 위해 양적확충 중심의 정책을 평가하며, 이후 보육시설의 질을 높여내는 내용있는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한다. 이번 기회가 보육시설의 제대로 된 기능을 안식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야 하며 교육의 질에 대한 대립적인 인식을 일소해야 한다.

즉, 복지부 차원에서는 일

차적으로 보육시설의 아동들이 다른 기관과 비교할 때 동일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정책적인 차원에서 확실한 대안을 가져야 한다.

특히 만5세아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것을 대비해 보육시설의 만5세아들에 대한 예산확충계획이 수립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이 본회는 이번 교개위의 유아교육 개혁방안에 대해서는 몇번째안을 지지한다는 입장보다는 장기적으로 일원화를 추진하는데 있어서의 절차와 과정상의 문제를 제기하고자 한다.

유아교육체계 개혁에 대한 방안이 일회성의 전시적인 차원이 아니어야 함은 명백한 것이고 그것을 위한 구조의 확립이 현시점에서는 중요하고 일차적인 과제를 밝히고자 한다.

즉, 구조의 독자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독자성이라 함은 정책의 기획뿐 아니라 예산의 측면에서나, 집행력의 측면에서나 형식적이 아닌 실질적인 위치가 되어야 하며 이러한 과정을 거쳐 우리나라의 유아교육이 장기적으로 아동과 부모의 입장에서 설 수 있는 일원화의 내용이 생산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두어달쯤 전인가, TV 뉴스에서 2000년까지 만5세아 무상교육을 실시한다는 보도를 보며 눈이 번쩍 띄었다. 이제 척박한(?) 유아교육계에도 예산이 풀리는구나 하는 반가움이 앞섰다. 중산층의 아이나 저소득층의 아이나 그 교육의 출발을 평등하게 한다는 말도 꽤 설득력이 있다고 느껴졌다.

그런데 시일이 지나고 공청회를 통해 정확한 자료를 받아 보면서, 교육개혁위원회 안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다.

보육교사로서 가장 절실하게 느껴졌던 점은 실제로 10만명 이상의 영·유아를 담당하고 있는 어린이집을 배제하고 유아교육 개혁안이 만들어졌다는 점이다. 지금 이순간에도 수많은 아이들이 어린이집에서 교육과 보호를 받으며 생활하고 있는데, 이러한 현실은 인정하지 않고 어떻게 한 나라의 장기적인 유아교육정책을 계획할 수 있는지를 의문이다. 공교육화라 함은 현행 유치원과 어린이집을 궁극적으로는 일원화하여 정부에서 대대적인 투자를 하고 투자한 만큼 감독하여 그 질을 높인다는 의미일 것이다. 그것은 말처럼 쉽지만은 않은 일이다. 우리나라 유아교육의 질을 높이고 모든 유아들이 혜택을 누리는 진정한 일원화를 위해서는

## 기획특집②

# 보육교사가 보는 교육개혁위원회의 유아교육 개혁안

김실이(안산 진달래동산 교사)

현실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도 없이 '교육부가 돈을 푸니까 교육부 주관인 유치원 중심으로 통합하자'라는 식의 즉자적인 발상은 버려야 한다.

보육교사의 입장에서라도 지금 당장의 흡수·통합되는 일원화는 괴롭다. 현재 유치원 교사들과 보육교사들의 인건비의 차이도 크고 사회적 지위의 차이도 존재한다. 이런 상태에서 바로 통합이 된다면, 보육교사들의 교권을 유지하는 것이 더 어려워질 것이다. '97 보육사업 지침에서 나타나듯이 복지부도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는 계획을 가지고 있고, 양성교육 출신의 교사들이 점점 어린 유아들을 맡게 되는 추세이므로 이것이 좀더 자리를 잡을 수 있도록 복지부에서 지원을 한 후에 장기적이고 치밀한 계획하여 일원화가 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개혁안을 보면서 드는 큰 걱정은 종일제에 있어서의 아동보호의 기능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점이다. 지금의 유치원들을 아이들이 하루종일 생활하는 곳으로 바꾸는데 드는 비용은 급식시설

을 갖추는 데만도 천문학적인 숫자일 것이고, 현재 유치원은 한반에 아동 40명까지 편제하고 있는데도 유치원 교사들이 지금까지 하루에 서너 시간밖에는 아이들과 생활하지 않았다고 할 때, 유치원마다 추가로 고용해야 할 인원은

상당히 많고 이에 따른 비용의 부담도 크다. 그런데 졸속으로 의형만 유아학교로 고쳐놓고 충분한 예산의 확보가 되지 않아 교사확보나 종일제 프로그램, 환경의 마련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그 피해는 누가 입게 될까? 바로 우리 아이들이다.

요즘 돌아가는 상황을 바라보면 평가 중요한 알맹이가 빠진 느낌이다. 공교육화는 아이들을 위해 하자는 것이고 바람직한 일인데도, OECD가입 후 유치원 취원율이 가입국 중 최하라서 개혁안을 낸다는 발상과 올바른 유아교육 체제를 만들기 위한 노력보다는 여론 공세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모습 속에서 불안감을 떨칠 수가 없다. 또한 한국보육시설연합회의 전면 보이콧 입장은 자칫 교육계와 보육계의 이권다툼으로 보일 수 있어 보육의 최일선에서 일하는 교사로서 걱정이 아닐 수 없다. 유아교육은 아이들의 현재와 미래의 행복을 추구하는 활동이다. 여기에 관여하는 어른들의 '진심'이 절실한 때다.

## 인권보육

# 『인권보육 커리큘럼』을 위한 제언

스즈끼 쇼조(일본보육정보센터 부소장)

이 자료는 국제연합 인권교육 10년을 맞이하여 일본 인권보육의 과제를 공유하고 실천하기 위한 '96 일본보육대회 분과토론회 자료 『인권보육커리큘럼에 대한 제언』입니다. '96년 12월호, '97년 1/2, 3, 4월호에 이어 이번호로 막을 내립니다. 부디 현장에서 인권에 대한 고민과 연구의 자료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4. 개인과 집단의 문제에 관하여

### ① [공터]와 [구석]

지금으로부터 30년 전만 하여도 일본의 곳곳에 [공터]가 있어서 아이들은 동네에 있는 [공터]를 놀이터 삼아 모여 놀았다. [공터]는 자연상태 그대로 아무 것도 없었다. 거기서 오전에는 어린아이들이 모여 놀았고 학교에서 돌아오는 소학교 아이들이 가세하여 여러가지 놀이가 펼쳐진다. 큰 아이들은 어린아이들에게 놀이의 규칙을 가르쳐주고 위험을 피하는 법도 가르쳐준다. 거기서 아이들은 자연스레 친구관계를 만들어냈다. 그런 친구를 원친구(어릴 적 친구)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사람이 일생동안 이 어릴 적 친구를 벗삼아 지낼 수는 없을 것이다. 필경 헤어질 때가 올 것이다. 그러나 사람들의 마음 속에 이 어린시절의 친구에 대한 애정이라든가, 싸웠을 때의 분함, 다시 화해했을 때의 기쁨 같은 것은 잊혀지지 않는다. 인간이 인간과 관계를 맺어나갈 때의 가장 소박한 감정과 방법을 어린시절 친구관계에서 배우게 되는 것이다.

[공터]에서 놀이에 사용했던 양감질 도구인 돌, 돌뿔사이에 널린 벌레의 허물, 작은 곤충의 시체 따위를 아이들은 품안에 간직한 채 집에 돌아와 그것을 어른들이 모르게 [구석]에다 모아둔다. 그 [구석]으로 친구를 데리고 가, 자신의 보물들을 보여주며 소곤대면서 그곳에서 논다. [공터]에서 집단의 관계를 맺는 한편 아이들은 [구석]에서 특정한 1대 1의 깊이있는 관계를 맺는다. 취학전 아이들은 남자 여자의 구별없이 친구관계가 자연스럽다. 그러다가 소

학교에 입학하면 여자아이, 남자아이는 다른 취급을 받고 남자는 여자를 내려다 보도록 배우게 된다. [공터]에는 아직 자유가 있었다. 그것이 우리들의 고향(예전에 살던 곳)의 이미지를 만들어 주었다.

우리가 유럽과 미국의 보육시설을 방문하면 곧 느낄 수 있는 것은, 대개 보육실에 [구석]이 설치되어 있다는 것이다. 집단보육을 기피하는 아이, 물이서 놓고 싶다는 아이에게 보육자는 이러한 [구석]에 들어가 특정한 아이와 소곤대며 놀도록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 일본의 유아원, 보육소에는 이러한 [구석]을 의식적으로 설치하는 곳이 거의 없다.

영국 런던대학에서 보육학을 강의하는 아이작 수잔씨는 이 [구석]을 cosyplace라고 설명했다. 집안에도 난로불이 타고 있어 따뜻하고 외부인이 쉽사리 드나들 수 없도록 극히 한정된 사람만이 모이는 장소를 cosyplace라고 부른다. 여기는 새 동지와 마찬가지로 아이들에게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라고 그는 설명하고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존중하고 그것을 인권이라고 의식해왔던 유럽사람들은 어릴 적부터 인간을 구속하거나 집단의 압력으로 개인을 압박하는 것을 허용치 않았다. 이러한 사고방식이 보육시설에 [구석]을 만들게 했던 것이다.

인권보육을 실행하려고 할 때, 아이들 하나하나의 인권을 충분히 보장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아침부터 저녁까지 집단 속에서 아이들을 구속하고 끌고 다니는 보육방식은 반성하고 수정해나가야만 한다.

## ② 인간은 [본원적 개체성], [본원적 공동성]이라는 2가지 성질의 통일체이다.

인간은 한사람 한사람이 독립된 개체이다. 병에 걸리거나 죽는다거나 하는 것을 누가 대신할 수는 없다. 배운다는 것도 다른 사람이 대신할 수 없다. 그러나 친구가 배운 것을 그 친구로부터 배우는 것은 비교적 쉬운 일이다. 부모나 부모한테 아이들이 많은 것을 배운다는 것은 그가 보육자를 좋아하기 때문이다. 아이들에게 반드시 [공터]가 필요한 이유는 본원적 공동성을 충족시켜주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아이 하나하나가 본원적 개체성을 가지고 있는 한, [구석]이 없어서는 안된다.

개성이라는 것은 그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꿈속에서 했던 놀이라든지, 한동안 그것에 푹 빠져버리는, 주체적인 일에 대한 관계 속에서 축적되는 것이다. 또한 아이는 자신의 경험을 친구와 공유하고 다른 경험을 한 친구들한테 배운 것을 더하여 뚜렷한 개성이 길러지는 것이다.

본원적 개체성과 본원적 공유성의 균형을 생각해두자.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아이에게 목적인대로 충고를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 ③ 민주주의의 원칙을 생활에

인권의 문제는 인간이 모두 대등평등하다는 생각을 인간관계 속에서 살리는 것이다. 인간이 그 우유적 특성(accidental attribute)으로 말미암아 인간으로서의 존엄에 손상을 받는다는 지, 기본적 인권을 빼앗긴다든지 하는 것을 허용치 않는 것이 인권의 사상이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태어난 때부터 상하가 없고 태어난 때부터 우열도 없으며 모두 평등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줄 아는 아이로 키우려고 생각한다면 보육소유아원에서 먼저 인간관계를 상하가 없고 우열이 없는 상태로 화기애애하게 더욱 정연하게 해야한다. 즉 민주주의의 원칙이

살아있는 보육소유아원이 되어야만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민주주의라는 말은 정치용어이긴 해도 일상 생활용어는 아닌데, 민주주의 원칙이 깊이 침투하지 않은 까닭이다. 그러하기에 21세기에 살아가는 아이들은 민주주의의 원칙을 몸으로 익혀 세계 어디에서도 통용하는 인간이 되어야만 한다.

그러므로 여기에서 민주주의의 원칙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민주주의에는 5가지의 원칙이 있으므로 그것을 먼저 분명히 해두자.

- (1) 다수결의 민주주의 원칙
- (2) 1인의 민주주의라는 원칙
- (3) 급식의 민주주의라는 원칙
- (4) 방임(연극)의 민주주의라는 원칙
- (5) 万華鏡의 민주주의라는 원칙

첫번째 [다수결의 민주주의]는 정치적 개념으로서 오늘날까지 의회민주주의 운영에 있어서 방법상의 원칙이 되어왔다. 다수의 사람이 정치에 참가하게 되면 대의제를 취하지 않으면 의논할 수 없기 때문에 선거로 대표를 뽑게 되었다. 대표들이 서로 의논을 하고 대립된 의견이 나오면 표결이라는 방법을 취한다. 그러면 다수의견과 소수의견이 확실해진다. 이렇듯 다수의견에 따라 문제를 처리하게 되는데 이것이 [다수결의 민주주의]라는 하나의 원칙이 되었다.

그러나 다수결의 표에 의한 결정은 그 시점에서 다수자가 하나의 선택을 한 것이므로 그 결정이 진리라든가, 진실로 합의를 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갈릴레오 갈릴레이가 내세운 지동설은 당시 교회의 심문관에게 [신의 가르침]과는 다르다고 하여 부정당하였다. 그때 심문관들은 다수결로 이것을 판정하였다. 그런데 오늘날에는 갈릴레이의 생각이 다수파가 되었다.

민주주의는 언제나 진리·진실에 따라 일을 처리해야 한다는 의미에서 [1인의 민주주의]를 원칙으로 한다. 그래서 소수자의 의견에 귀를 기울이고, 의견의 차이를 배제하거나 억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또한 민주주의는 늘 평등을 추구해야 한다. 이것은 [급식 민주주의]라고 생각하면 이해하기 쉬운 것이다. 한사람당 분량이 이만큼이라고 결정하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게 나누는 것이다. 몸이 큰 아이가 점점 불리하다 싶어도 처음에는 평등하게 나눈다. 몸이 작은 아이가 지금은 조금 작으니까 제 것을 나누어주도록 큰 아이에게 요구해도 좋은 것이다. 그러나 처음부터 작은 아이에게 절반, 큰 아이에게 곱절을 나누어 주면 그로부터 불만과 싸움이 끊임없이 일어날 것이다. 현실사회에서도 누구나 일정한 생활 수준을 유지할 수 있도록 생산물이 분배되는 것이 민주주의사회의 원칙이다. 모두가 평등대 등하다고 하여, 모두가 제멋대로 뽕뽕이 흩어진다면 집단에서 하나의 일을 하려고 할 때 지장을 초래한다. 연극을 하려고 하면 감독이 있어서 주역 조역, 통행인 등을 결정하고, 대도 구, 소도구를 갖추어야 하나의 극이 이루어진다. 누구나 주역을 하고 싶고 다른 역할은 안한다고 하면 극은 이루어질 수 없다. 오케스트라에서도 그렇다. 지휘자가 있어 제1바이올린을 결정하고 비올라, 오보에 등 각종 악기의 연주자가 지휘자를 따라야 하나의 음악이 연주된다.

[방임 민주주의], [연극 민주주의]도 하나의 원칙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

[까마귀 어째서 우느냐, 까마귀 마음대로야]하는 개사곡이 아이들에게 유행했던 적이 있다. 돈벌이에 열중해 있는 사람들은 여차하면 단결하여 다수과공작을 성립시킨데 반해 가난한 사람들이 [까마귀 마음대로야]하고 뿔뿔이 흩어져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눈물을 분다는 것인데, 자유분산주의의 결점이다. 민주주의는 가진 사람(브루조아)을 위한 정치적 속임수이기 때문에 이것을 브루조아 민주주의라고 부르며 민주주의의 올바른 원칙까지 부정해버리는 것은 잘못이다. 다수가 더욱더 민주주의의 생활방식에 충실하여 자신의 [재밋대로주의]를 극복할 필요가 있다.

민주주의의 제5번 항목, 가장 새로운 원칙은 [만화경의 민주주의] 원칙이다. 만화경은 赤, 靑, 黃, 錄 같은 다양한 색과 사각, 삼각, 고리모양, 실모양, 쇠사슬모양 등 다양한 형태가 모여 갖가지 모양을 펼친다. 이것이 [만화경 민주주의]인 것이다. 다양한 것이 차이를 가지고 모여 만화를 전개하고 무궁무진한 아름다움을 만들어낸다. 한가지 모양으로 구속하는 것은 민주주의원칙에 맞지 않는다.

아이들한테 세계에는 여러 다른 민족들이 다양한 생활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가르쳐야 한다

오끼나와의 어떤 사립보육원에서 일어났던 일이다. 기지에서 생활하고 있는 미국 흑인 조종사 부부가 아이를 오끼나와에 있는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도록 하는 귀중한 유아기의 체험을 시키고 싶어서 기지 밖에 있는 이 사립보육원에 보육을 의뢰했다. 5살인 존군은 엄마와 떨어져 보육소에 왔지만 말이 통하지 않고 외국어인 한사람뿐이어서 엄마가 돌아가고 나면 의자에 앉아 훌쩍훌쩍 울었다. 그것이 삼일동안 계속되었다. 그 아이의 살빛이 까매서 오끼나와 아이들은 처음엔 놀란 모양이다. 아마 가까이 가지 않고 멀리서 존군을 보기만 했던가 보다. 4일째 되는 날 아침, 존군은 의자에 앉아 가방을 맨 채 그대로 있었다. 그 날, 아이들은 존군을 둘러싸고 있다가 차츰 존군에게 가까이 다가갔다. 그때 누군가 한 아이가 밀려 넘어지는 바람에 존군이 그 아이 밑에 깔려 넘어졌다. "누가 밀었어."하고 그 아이가 소리치며 울었는데, 다음 순간 이 아이는 모두에게 이렇게 말했다. "존 눈물 짜다. 내 눈물처럼 짜다." 그 소리를 들은 아이들 모두가 존의 뺨에 흘러내린 눈물을 손가락으로 찍어 훔쳐보았다. "정말이다, 짜다, 짜." 그때부터다. 아이들은 "존군, 이리와"하며 존의 손을 잡고 자신들의 놀이에 끼워주고 놀기 시작했다.

그로부터 7개월이 지나, 존군의 아버지가 다시 미국으로 가게 되었다. 보육원에서는 존군과 부모님을 불러서 송별회를 열어주었다. 존군은 떠들떠들 오끼나와말로, 아이들의 대표는 7개월동안 존군한테 배운 영어를 섞어서 송별사를 했다. 그리고 손으로 만든 장난감들의 선물을 전해주었다. 존군이 보육원을 떠날 때 부모도 아이도 모두 울었다.

"차이를 모아 풍부하게"라는 것은 이같은 것이리라. 오끼나와시의 이 아이들도 존군도 아마 인간은 모두 같다는 것을 잊지 않으리라.

하나만 더 에피소드를 소개해보겠다. 우리 대관의 보육소 관계자가 스웨덴을 방문했던 적이 있다. 거기서 보육소를 방문했는데 일본인 브모가 한사람 있었다. 의아한 생각이 들어 질문을 했더니 아래와 같이 설명을 했다.

"나는 동경에서 브모를 하고 있었는데 남편이 스톡홀름으로 출장을 가게 되었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그 직후 스톡홀름시 공보에 일본의 브모자격을 갖춘 사람을 구한다는 기사가

났다. 응모한다면 이 보육소에 가리라 작정하였다. 이 보육소에 7명의 일본인 자녀가 입소하였던 것이다. 이 아이들에게 일본어로 보육해달라는 것이다. 놀라웠다. 스웨덴 정부는, 일본 아이들은 일생 스웨덴에 있는 것이 아니고 곧 일본으로 돌아갈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 아이들이 돌아갔을 때 일본어를 잊어버려 교육을 받는데 지장을 받게 된다면 이 아이들의 인권이 박탈된다고 본 것이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모국어를 잊지 않도록 보육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것이다."

외국아이들이 일본의 보육소유아원에도 오게 될 것이다. 스웨덴 아이들에게 웃음거리가 되지 않는 보육의 알찬 내용을 준비해두어야만 한다. 인권보육 커리큘럼에, 이러한 예로부터 충분히 배워서, 우리의 희망을 함께 담아내야 한다고 생각한다.

#### ④ 끝없이 이어진 슬픔과 분노의 산맥에 서서

제2차세계대전이 끝난지 50년 이상이 지났다. 그동안 조선전쟁, 베트남전쟁에 이어 최근에는 페르시만전쟁 등 다종다양한 전쟁이 있었다. 그리고 지금도 각지에서 피비린내 나는 민족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우리들은 온세계가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상황으로 되돌아가기를 바라지 않는다. 아직 세계대국은 핵보유국으로 지하핵실험을 감행하고 있다. 핵을 근절할 때까지 기세를 늦추서는 안된다. 일본은 지금 평화상태이다. 그러나 오끼나와는 군사기지 섬으로서 아직 다수의 미군에 점령되어 있는 상태이다. 그곳에서 작년 9월, 소녀폭행사건 같은 용납할 수 없는 사건이 연이어 일어났던 것이다. 본토에도 아직 미군기지는 남아 있다. 아직도 힘에 의한 평화상태이다.

"인권의 무시와 경멸은 인류의 양심을 짓밟는 야만행위를 일으킨다."라는 말은 세계인권선언의 전문에 나오는 말이다. 야만행위의 가장 극단은 전쟁이다. 끊임없이 일어나는 야만행위는 차별이다. 따라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을 기르는 것이 세계인권의 정신에 따르는 것이다.

독일 대통령이 연방의회에서 세계전쟁종결 45주년 기념강연을 한 적이 있는데, 그 연설 중에 "끝없이 이어진 슬픔의 산맥에 서서"라는 말이 나온다. 전쟁에서 부모나 형제, 남편이나 부인, 자식을 잃어버린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 태산처럼 이어져온 것이다. 이 슬픔의 산맥에 서서 두번 다시 이 비극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결의를 세계인류에게 호소했던 것이다.

부당한 차별을 당하여 생명을 잃어버린 많은 젊은이가 있다. 이 사람들은 단지 슬프기만 했던 것이 아니라 분노했던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들은 끝없이 이어진 슬픔과 비극의 산맥에 서서 인권을 보호하겠다는 결의를 다지지 않을 수 없다.

"과거에 눈을 달아버리는 것은, 미래에 인간답게 살아가는 것을 저지하는 것이다. 아이들과 함께 인간의 생명에 대하여 배우는 동시에 희망을 이야기하자.

우리가 요구하는 인권보육커리큘럼은 아이들과 함께 슬픔과 분노의 산맥에 서서 함께 희망을 이야기해야만 한다.

어린이정보연구센터 소장

보육정책

# 보육사업 활성화 제안 회신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

본회는 지난 3월 보건복지부에 보육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이 글은 제안에 대한 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의 검토 회신입니다.

## 1. 보육시설 확충계획의 개선

| 건의                                                           | 의견                                                                                                                                                                                                                                |
|--------------------------------------------------------------|-----------------------------------------------------------------------------------------------------------------------------------------------------------------------------------------------------------------------------------|
| 저소득층 지역내 민간시설 정부 지원시설 전환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저소득계층에 대하여는 국공립과 민간시설의 구분없이 대상아동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li> <li>저소득층 밀집지역에 있는 보육시설의 보육서비스 대상은 주로 저소득층이므로, 저소득층 지원 차원에서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li> </ul>                                             |
| 시설별 지원은 차등지원이므로 프로그램별 지원으로 전환하여, 전체보육시설을 지원대상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사업확충 3개년계획이 올해 말로 끝나, 시설확충 면에서는 어느 정도 충족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민간 시설에도 지원이 확대되도록 사업의 질적 향상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li> </ul>                                                                             |
| 객관적 수요조사에 근거한 보육 서비스의 개발보급<br>- 급간식비 두자녀 겸감<br>- 방과후 보육의 활성화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두 자녀 동시보육의 경우 보육료 감면시 보육시설의 운영상 수입의 감소를 야기하여 운영의 어려움이 예상됨.</li> <li>보육료감면 부분을 정부가 지원하여야 하므로 예산확보방안을 협의 추진할 계획입니다.</li> <li>방과후 보육 활성화는 아동의 안전확보 방안미련과 함께 보육료의 현실화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

## 2. 전체보육시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의 질적 개선

| 건의                                                                                                                             |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프로그램 연구성과·보급의 형평성 제고</li> <li>무료보급의 대상 전시설로 확대</li> <li>차등보육료제 도입을 위한 정책연구</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97년도 보급분(급식·영아보육프로그램)을 우선 각 시도 예산으로 보급하도록 하고, 지방비 확보가 여의치 않을 경우는 실비(1질당 2만원대 수준)로 보급하는 방안을 고려하도록 하겠습니다.</li> <li>현재 생활보호대상자, 기타 일정소득 이하의 저소득 가정의 자녀에 대하여 보육료를 감면하고 있는데, 차등보육료 도입은 각 가정의 소득과 재산사항이 정확하게 파악되는 것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장기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료 소득공제 실시</li> <li>저소득자 공제율 높게, 고소득자 공제율 낮게</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재경원과 협의중이며, 올해 안으로 시행될 것으로 전망하나, 귀단체에서도 이 부분에 관심을 갖고 빠른 시일 내에 시행될 수 있도록 재경원에 건의 또는 설명, 매스컴을 통한 당위성 홍보 등을 추진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li> <li>공제금액의 결정은 근로자의 소득 중 "보육비용" 또는 "교육비용"의 실비에 대한 결정액으로 알고 있으므로 전체소득과 연계할 성질이 아니라고 봅니다.</li> </ul>                      |
| 보육정보센터 실무자간의 교류, 협의체 구성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한국보육정보센터(KDA-NET)와 협의하여, 정보교류화를 촉진하는 방안 검토하고자 합니다.</li> </ul>                                                                                                                                                                                           |

## 3. 보육시설종사자 관리제도 개선

| 건의                                                                                                                                         | 의견                                                                                                                                                                                                                                                                                              |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교사 과잉공급 지양·관련학과 등 인정범위 축소</li> <li>시설장 자격기준 강화</li> <li>예시)정원 20인 이상 시설장은 보육교사 1급 이상으로</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관련학과 인정범위 축소문제는 보육교사 자격증 도입과 관련하여 검토하게 될 것이며, 시설장 자격기준 강화문제는 신중하게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li> </ul>                                                                                                                                                               |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교사 양성교육 및 보수교육의 강화</li> <li>경력인정제도의 개선</li> </ul>                                                   |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보육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서 보육교사 양성교육과 보수교육을 강화하여야 한다는데 공감합니다.</li> <li>다만, 양성과정의 교육시간은 단순히 시간을 늘리는 것보다 이론과 실습의 강화 등을 통하여 양질의 보육교사를 배출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개선할 계획입니다.</li> <li>또한, 기존의 보육교사에 대한 보수교육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추진해 나가겠으며 경력인정 범위는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점차 확대할 방침입니다.</li> </ul> |

#### 4. 전체 보육시설종사자의 4대 보험의 가입방안 강구

| 건의                          | 의견                                                                                        |
|-----------------------------|-------------------------------------------------------------------------------------------|
| 의료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의 우선적용 추진 | 의료보험은 이미 전국민 개보험화되어 있으며, 국민연금도 농어촌지역에 이어 도시지역까지 확대가 추진되고 있습니다. 산재보험 적용문제는 노동부와 협의하고자 합니다. |

#### 5. 정부의 보육시설 종사자 인건비 보조 확대

| 건의                            | 의견                                         |
|-------------------------------|--------------------------------------------|
| 보육교사 수당을 신설하는 경우 민간도 혜택받도록 조치 | 영아장애아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에 따른 인건비 지원을 검토 추진할 계획입니다. |

#### 보육정책②

### 보육사업 정책방향

신현수(보건복지부 아동복지과장)

지난 4월 30일 제6회 어린이와 청소년의 생존·보호·발달을 위한 전국대회 '21세기 한국의 아동정책'에서 '한국 아동정책의 현황과 과제'라는 주제 발표내용중 보육사업에 관한 부분을 발췌하여 실습니다. 앞의 답변서와 함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1) 보육교사 전문성 강화 및 처우개선

- 보육의 질을 높이기 위한 첫째 조건으로서 우수한 교사를 확보하고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하여 '96. 12. 현재 유치원 교사의 70% 수준에 머물고 있는 보육교사의 보수수준을 2000년까지 동등한 수준으로 향상시키고, 경력인정 체계 및 승진제도의 도입 등을 통하여 교사가 사명감을 가지고 오랫동안 근무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나가며
- 또한, 장기적으로는 대학에 보육학과 설치 유도하고 보육교사 자격증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방침이다.

#### 2) 보육프로그램의 개발·보급

기존에 개발·보급한 프로그램 외에 방과후 아동보육, 아동 안전보육, 장애아보육, 유아보육 등 아동의 연령·능력·적성·특성 등에 따른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여 보다 전문적인 보육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3) 보육서비스의 다양화

현재 보육아동의 연령에 따라 영아반, 유아반으로 구분하는 일반적인 유형과 별도로 대상아동의 특성을 고려하여 장애아·영아 전담시설, 방과후 보육시설 등 특수보육시설들을 운영하고 있으나, 추진실적은 매우 미흡한 실정에 있으므로 앞으로 보육교사 인건비 지원 확대, 교재교구비 등 운영비 지원확대 방안을 강구하여 수요 맞는 다양한 서비스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할 계획입니다.

#### 4) 정보화체계 구축·운영 활성화

현행 법령상 각 시·군·구별로 보육정보센터를 설치하여 영유아보육에 대한 제반 정보제공 및 상담에 응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보육정보센터에 전담인력을 배치하거나, 직접 운영이 어려운 경우에는 관할구역내의 사회복지관, 보육시설, 보육시설연합회 지부 등의 시설을 이용하거나 사회복지법인 등에 위탁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해 나가도록 하는 등 보육정보센터 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하고 장기적으로는 각급 행정기관 및 보육정보센터 간에 연계체계를 구축하여 신속한 정보교류를 통한 보육사업 발전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 5) 보육시설의 평가관리 추진

각급 보육시설에서 양질의 보육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보육시설의 평가를 위한 객관적 기준이나 평가체계, 평가의 방법 등에 관하여 보육전문가로부터 의견을 수렴하여 적절한 평가제도를 마련하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 6) 보육행정의 전문성 제고

영유아보육사업이 보건복지부로 일원화되었으나, 보육전담부서가 독립적으로 설치되지 못하고, 기존의 아동 또는 여성업무 부서에서 보육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기관이 많으며,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자주 교체됨에 따라 행정의 전문성과 계속성에 어려움이 있다. 앞으로 중앙 및 일선의 보육전담기구를 설치하여 보육사업의 전문화, 체계화를 기하기 위하여 관계부처와 협의를 계속해 나갈 계획이다.

간부훈련

## '97 제1회 지도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마치고

· 편집부 ·

우리 조직의 관리와 확대를 위하여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하자!

담당한 여성은 모든 일에 있어  
긍정적인 사고를 한다!

'한국보육교사회(가칭)' 조직부에서는 4월 26일 하루종일 '간부의 지도력 강화를 위한 워크숍'을 대전 카톨릭농민회관에서 각지역의 30여명의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치렀다.

이번 워크숍은 8월초로 예정되어있는 지탁연의 '한국보육교사회'로의 발족과 더불어 지역의 보육교사회 창립을 위한 활동중 일환으로, "간부가 바로서야 조직이 산다"라는 교훈을 다시금 일깨우고 우리 조직의 강화와 확대를 위하여 이 조직적 과제를 간부들은 어떤 방식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 함께 고민하는 '나 자신으로부터 변화하자'란 주제로 진행하게 되었다.



'보육교사회에 기대되는 점은? 전문성 확보! 대중조직화!'

전국조직을 감안하여 중간지점인 대전을 장소로 택하였지만 여전히 시작시간을 맞추기란 쉽지 않았다(일찍 오신 선생님들께 다시 한번 지면을 통해 사과드립니다).

이번 워크숍을 하게 된 동기에 대한 조직 부장의 찰막한 소개와 한국여성사회연구원 부원장 김희은님의 진행으로 본 일정이 시작되었다.

1부 '21세기 여성지도자로서 우리의 우뇌를 훈련하자.' 즉 자신의 이름을 남에게 정확히 기억시키는 것으로, 참가자들은 자기 이름으로 삼행시를 지어 저마다의 특징을 소개했는데 그중 재미있는 것 몇가지를 소개하면 이렇다. '고자 정자 미자(인천 고점미선생님)', '이 여자는 영특하고 지혜롭다(전북 이지영선생님)', '박꽃처럼 소박한 여인이며 철철 넘치는 인간성을 가지고 희희낙락하며 한 세상 살고 싶습니다(충북 박철희선생님)'...

‘선생님들이 과연 할까?’ 처음 기획할 때 지냈던 우려를 뒤엎고 모두 자신을 당당히 소개하였고 가끔은 배꼽을 잡을 상황이 벌어지기도 하였다.

앞으로 갈 길이 멀어 아쉽지만 1부를 마치고 2부는 ‘지탁연의 조직변화, 역사의 과제로 받아들이자.’의 첫 순서로 지탁연의 옛 조직 점검에 들어갔다. 옛조직의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준비한 카드에 개념화된 자신의 의견을 적어 사회자의 인도로 비슷한 내용끼리 분류를 한 결과 긍정적인 면으로는 동료들의 적극성과 헌신성, 즉 힘찬 열정에 대한 자부심이 가장 컸던 것으로 나타났고 ‘보육’에 관해서는 독보적인 존재로 변혁운동에 근거와 지역사회에 기여한 자부심, 조직에 대한 애정이 많았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고 인간에 대한 애정과 어린이집에 부모의 참여, 여성운동에 기여했다 등 다양한 의견들이 나타났다. 부정적인 면으로는 조직운영에 관한 부족에서 오는 여러가지를 지적하였고, 보육교사의 문제점과 폐쇄성, 정보부족 등인 것으로 지적되었다.

보육교사회를 일리는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브로셔



옛조직의 점검에서 새로운 과제 ‘보육교사회’가 도출되었고 이 새로운 조직, 보육교사회에 기대되는 점과 우려되는 점을 첫 순서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기대되는 점으로는 조직의 확대에 대한 기대, 보육교사의 전문성·정체성 확보, 교사복지와 보육정책에 기여할 수 있다는 기대를 우리 교사들은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우려되는 점으로는 보육교사회의 역량을 어떻게 모을 것인지, 회원관리를 정말 잘 해낼 수 있을지, 이 과도기의 혼란을 어떻게 극복해낼지 등등 현재의 고민들을 자세히 알 수 있는 기회였고 나만이 하는 고민이 아닌 것을 확인하며 조금은 힘이 빠졌지만 많은 우려를 극복하는 길은 무엇인가란 과제로 준비팀에서 즉석 프로그램을 진행한 결과, 많은 우려점이 있음에도 나 자신의 노력과 조직이 함께 하면 된다는 확신을 모두가 갖고 있어 우리는 역시 긍정적인 사고를 갖고 있는 교사들인 것을 확인하였다.

2부를 마치고 3부 ‘우리가 갖추어야 할 것 중 전문성과 대중성’에 대한 워크샵에 들어갔다. 3부는 3조로 나누어 분반워크샵으로 교사 각자의 생각을 허물없이 나누는 시간이었다. 곧이어 전문적이고 대중적인 보육교사회의 내용을 함축적으로 담은 브로셔를 만드는 시간으로 각 지역별로 작업을 하였는데 정말이지 우리 보육교사들은 흔히 말하는 ‘엔터테이너’ 그 자체로 작업했던 것을 독자들에게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못내 아쉬울 정도로 너



『별을 받는게 아니예요!』  
인성개발 워크샵 프로그램  
에 열심히 참여하고 있는  
참가자들의 모습

무나 훌륭했다. 여담으로 가장 잘 만든 것으로 한국보육교사회 브로셔를 하면 되겠다. 여러개 중 가장 좋은 부분만 모으면 되겠다는 등의 이야기를 나누기도, 브로셔를 만드는데 시간이 많이 걸려 다음 일정은 생략하고 곧바로 뒤풀이로, 모두가 주(酒)넘을 모시며 한잔 한 후에 당당히 자신을 표현하는 훈련으로 ‘어렸을 적 기억중 살아가면서 잊지 못하는 장면을 몸으로 표현하기’를 한사람씩 온몸으로 2분간 연출하였는데 정말이지 쉽지 않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도자의 깊은 힘난하하기에 모두가 열심히들 하였고, 비디오로 찍어놓지 못한 것이 또한 아쉽다.

당초 1박2일로 기획되었으나 ‘유아교육 개혁방안’이라는 중차대한 사안에 관한 토론회를 27일 하기로 뒤늦게 결정하여 준비된 인성개발프로그램을 다하지 못한 것이 아까웠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며 하루의 일정을 마감하였다.

참석자들은 시종일관 흥미있어하며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 간부로서 어느 정도 자신감을 얻고 나와 내 동료도 나와 같은 고민과

과제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는 동안 거리상 멀리 떨어져 있어도 외롭지 않다는 끈끈한 동료애를 느낄 수 있었다. 또한 워크샵 내내 서로에게 칭찬을 아끼지 않고 인사도 깎듯이 잘하고 자신의 생각도 뽕뽕이 표현하는 연습을 통해 나 자신으로부터의 변화를 결의하는, 많은 도움이 되는 워크샵이었다고 여겨진다.

이 워크샵을 위해 한국여성사회교육원 김희은선생님과 임남희 부회장님, 인천 사무국장 고정미선생님이 수고를 하셨습니다.

좋은 워크샵이 될 수 있게 해준 참석자, 준비팀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통신이야기

# 썩썩한 어린이집 용감한 선생님의 PC통신 입문기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찾아가기 go go go...

이강선주(한국보육정보연구소 연구원)

따뜻한 봄벌이 밖으로 나오라고 친구들을 유혹하는 계절, 봄입니다. 바깥놀이 가자고 조르는 어린이집 친구들 성화에 하루 해가 너무 짧게 지나지 않나요?

오늘은 제가 PC통신을 배우고 참으로 잘난 척을 했던 이야기를 말씀드릴게요. 얼마전에 썩썩한 어린이집 가장 썩썩한 언니였던 성지가 이사를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성지어머니는 이사를 가면 어떤 어린이집에 보내야 할지 난감하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구요. 이사가는 곳이 강서구인데 미리 알아보러 다닐 시간도 없고 이사하면 바로 출근을 해야하기 때문에 걱정이 많다고 하시더라구요. '핫핫핫... 드디어 내가 밤을 새우고, 전화비를 들여가며 무자한 댓가를 거둘 시간이 왔구나!'하는 생각이 제 머리를 스치고 지나더라구요. 그리고 전 성지어머니를 감동시켰답니다. 어떻게 했는지 궁금하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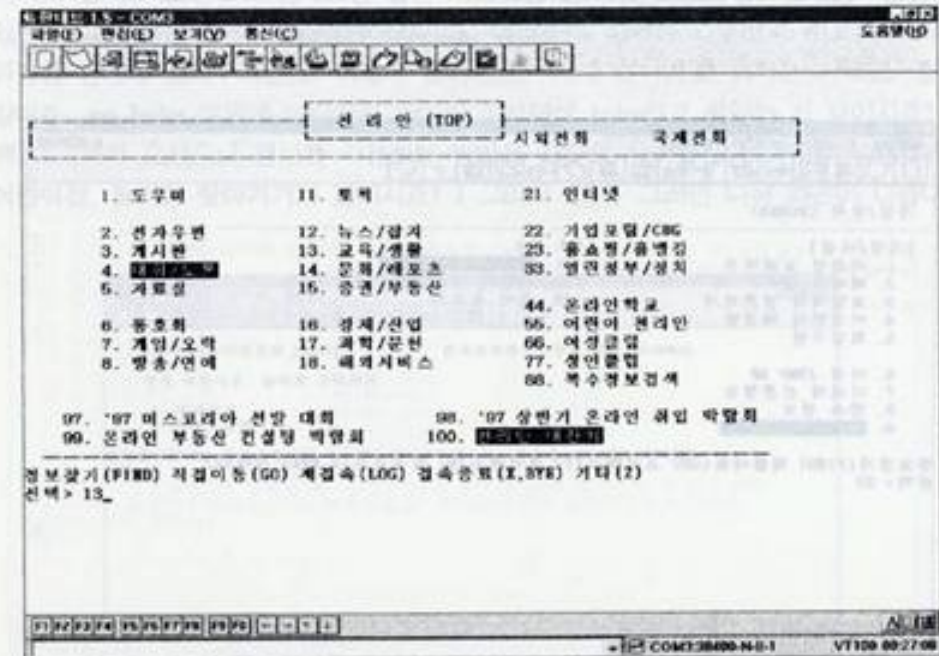
지택연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꼼꼼히 읽으시는 선생님들은 다 아시겠지만, 지택연 부설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천리안, 하이텔, 유니텔을 통해서 어린이집에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거든요. "어린이집/놀이방 정보" 오늘은 이 정보를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지 알려드릴게요.

참! 지난달에 제가 아이디 가입하는 법을 알려드렸는데 다들 가입을 하셨나 모르겠네요. PC통신을 배우려면 백권의 책을 읽는 것보다 한번 직접 해보시는 것이 더 낫답니다. 이름하여 백독이 불어일행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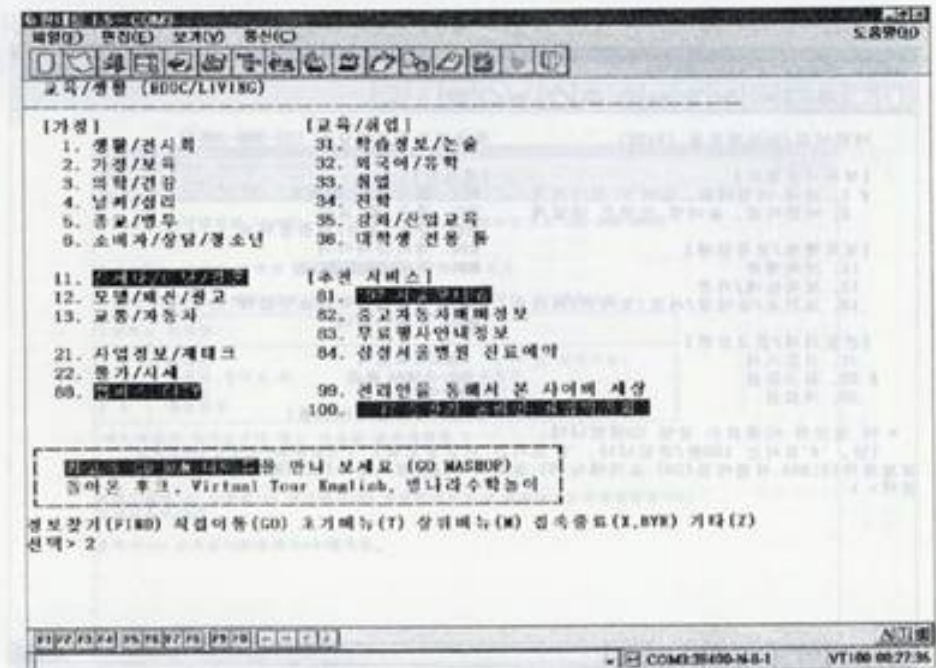
먼저 컵을 켜시고, 도스나 윈도우 상태에서 이야기 프로그램(또는 한글의 한네트)으로 들어가시고... 그 다음엔 전화걸기 atdt 01420 전화가 걸리면 초기 화면이 나옵니다. 천리안을 선택(1을 누르고)하고 엔터를 치세요.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치시면 접속이 완료된 상황입니다.

이제는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찾아가 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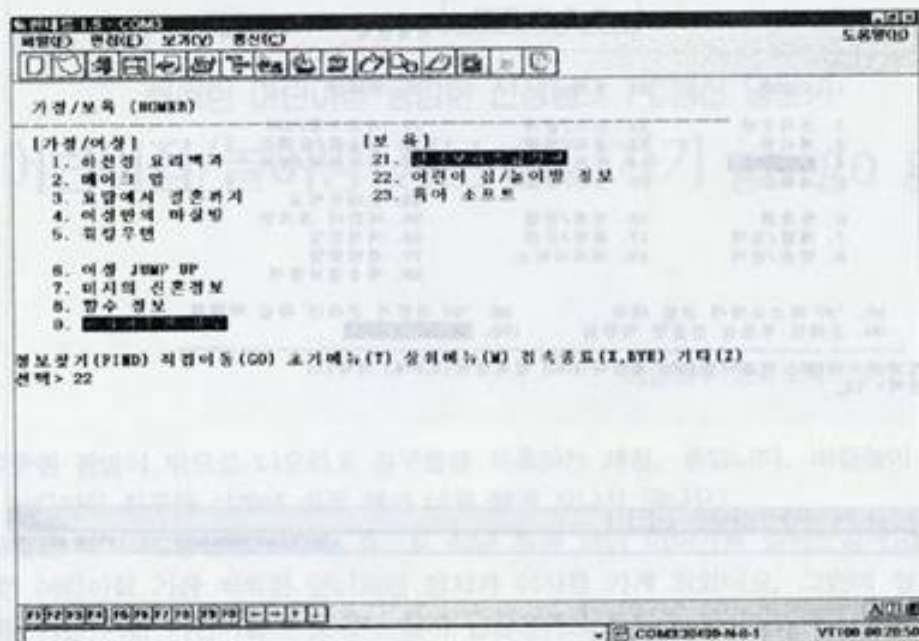
다음과 같은 초기 화면에서 "어린이집/놀이방 정보"가 있음직한 란을 찾아보세요. 아마도 13. 교육/생활부분일 것 같군요. 13번을 누르고 엔터를 치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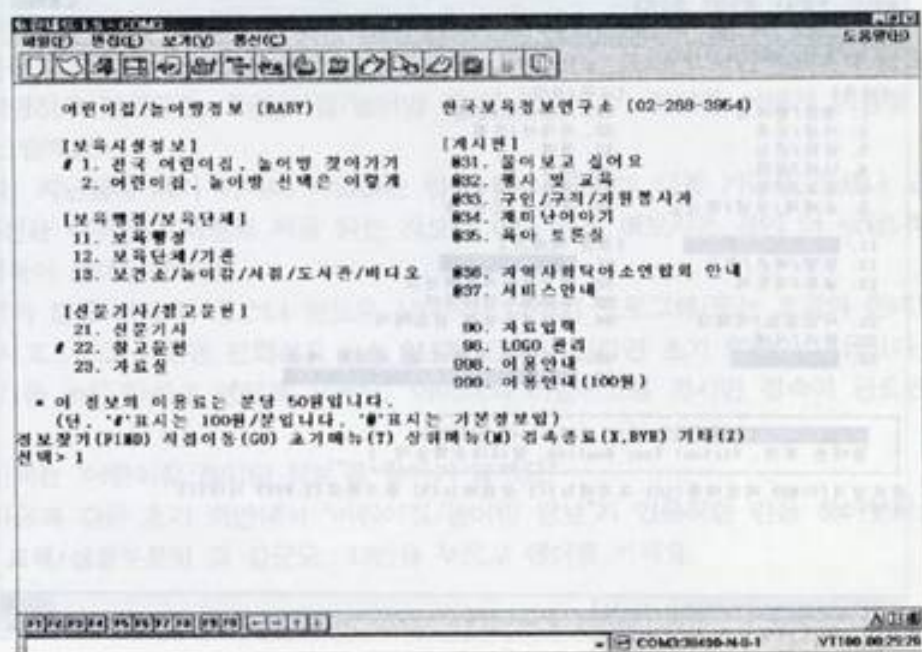
이제 교육/생활부분으로 들어왔습니다. 다음의 부분에서 또 있음직한 곳을 찾아봅시다. 아! 2. 가정/보육에 있을 것 같군요. 2를 누르고 엔터를 치세요.



여러분은 가정/보육부분으로 들어오셨습니다. 다음에서 22.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선택 하세요.



다음에 보이는 화면이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제공하는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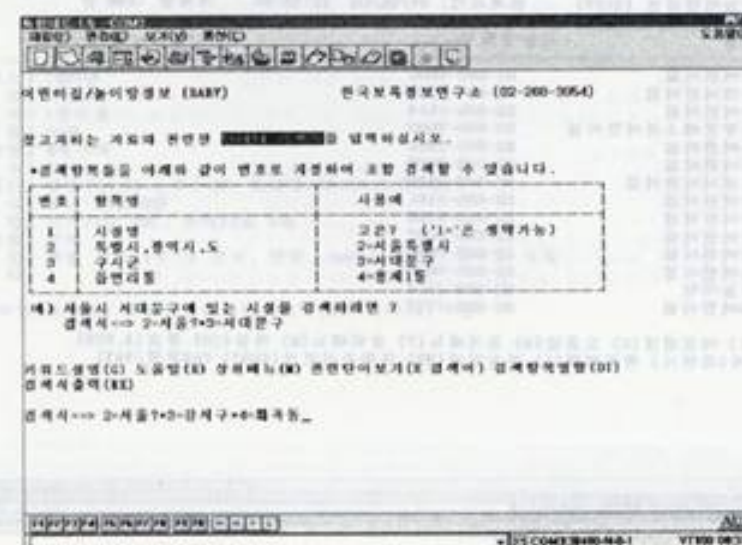


여기까지 잘 찾아오신 여러분이라면 잠깐 지름길을 알려드릴게요. 천리안에는 여러가지 명령어가 있는데 그중 유용한 것이 go 명령어입니다. 여러분이 이제까지 몇번의 수고를 거쳐서 찾아오신 과정을 한번에 끝내주거든요. 어떻게 하나요, '가자 베이비'를 외치는 거예요. 물론 자판으로 말이죠. go baby 팬위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옆에 baby라고 써있는 거 보이시죠?

이제 여기까지 오셨으니 정보를 사용하는 방법을 찬찬히 살펴봅시다. 뭐가 보이시나요? #1. 전국 어린이집, 놀이방 찾아가기가 보이시죠? 1 그리고 엔터,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1. 전체검색을 선택하시면 있는 정보가 줄줄이 나오니 2. 키워드 검색을 사용하세요. 그러면 다음 화면이 나옵니다. 서울시 강서구 화곡동에 있는 어린이집을 알아보시려면 다음과 같이 하세요.



어린이집/놀이방정보 (BABY) 검색시각: 97/05/03 22:35:23 자료량: 2 건

번호 시설명 연락처

|   |        |             |
|---|--------|-------------|
| 1 | 한국어린이집 | 02-699-3087 |
| 2 | 영재어린이집 | 02-697-7100 |

검색(번호) 이용설명(C) 도움말(H) 초기화(T) 상위메뉴(M) 이동(G) 종료(X, BYE)  
 목록열람(L) 연속열람(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기타(Z)  
 선택> \_

COM3:30499-N-1 VT100 90.35.17

여기까지가 화곡동에 있는 등록된 어린이집입니다. 너무 적은가요? 그럼 강서구 전체의 어린이집을 알아보죠.

검색식 ==> 2=서울?\*3=강서구

어린이집/놀이방정보 (BABY) 검색시각: 97/05/03 22:35:00 자료량: 100 건

번호 시설명 연락처

|    |             |             |
|----|-------------|-------------|
| 1  | 가람어린이집      | 02-683-0801 |
| 2  | 제니리어린이집     | 02-684-2726 |
| 3  | 공평어린이집      | 02-685-1514 |
| 4  | 꿈나무문태초대어린이집 | 02-686-7503 |
| 5  | 대송어린이집      | 02-686-1991 |
| 6  | 상록어린이집      | 02-643-7397 |
| 7  | 여기전사어린이집    | 02-643-0126 |
| 8  | 명광어린이집      | 02-685-4161 |
| 9  | 아람어린이집      | 02-690-5798 |
| 10 | 한국어린이집      | 02-699-3007 |
| 11 | 한성어린이집      | 02-682-6668 |
| 12 | 한울어린이집      | 02-682-3808 |
| 13 | 문문놀이방       | 02-686-2214 |
| 14 | YRCA어린이집    | 02-603-7752 |

검색(번호) 이용설명(C) 도움말(H) 초기화(T) 상위메뉴(M) 이동(G) 종료(X, BYE)  
 다음페이지(리턴키) 열람페이지(B) 목록열람(L) 연속열람(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기타(Z)  
 선택> \_

COM3:30499-N-1 VT100 90.35.76

내용이 더 있을거예요. 엔터를 한번 더 치세요. 다시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이집/놀이방정보 (BABY) 검색시각: 97/05/03 22:38:53 자료량: 100 건

번호 시설명 연락처

|    |            |             |
|----|------------|-------------|
| 15 | 하늬어린이집     | 02-659-1302 |
| 16 | 강변어린이집     | 02-654-9290 |
| 17 | 강서영재어린이집   | 02-681-1728 |
| 18 | 꿈나무어린이집    | 02-659-0495 |
| 19 | 문태초대어린이집   | 02-659-3430 |
| 20 | 등촌2동어린이집   | 02-643-5630 |
| 21 | 달동어린이집     | 02-653-3553 |
| 22 | 도림초대초대어린이집 | 02-656-9378 |
| 23 | 명산어린이집     | 02-605-6894 |
| 24 | 명파1동어린이집   | 02-684-9831 |
| 25 | 명파2동어린이집   | 02-684-9574 |
| 26 | 명고어린이집     | 02-605-4090 |
| 27 | 보성어린이집     | 02-682-6665 |
| 28 | 사부어린이집     | 02-681-0000 |

검색(번호) 이용설명(C) 도움말(H) 초기화(T) 상위메뉴(M) 이동(G) 종료(X, BYE)  
 다음페이지(리턴키) 열람페이지(B) 목록열람(L) 연속열람(NR) 목록순서변경(SORT)  
 FAX출력(FAX) 기타(Z)  
 선택> \_

COM3:30499-N-1 VT100 90.35.59

이런 식으로 강서구에 있는 어린이집의 명단을 다 보셨는데 특히 이름이 마음에 드는 곳이 있으시다면, 번호를 선택하시고 엔터를 치세요. 저는 35번을 한번 선택해보죠. 35. 영재 어린이집의 자세한 내용이 올라옵니다.

번호: 35/100 입력일: 96/09/11 14:29:25 자료량: 21 줄

[시설명] 영재어린이집 [생 일 세] 개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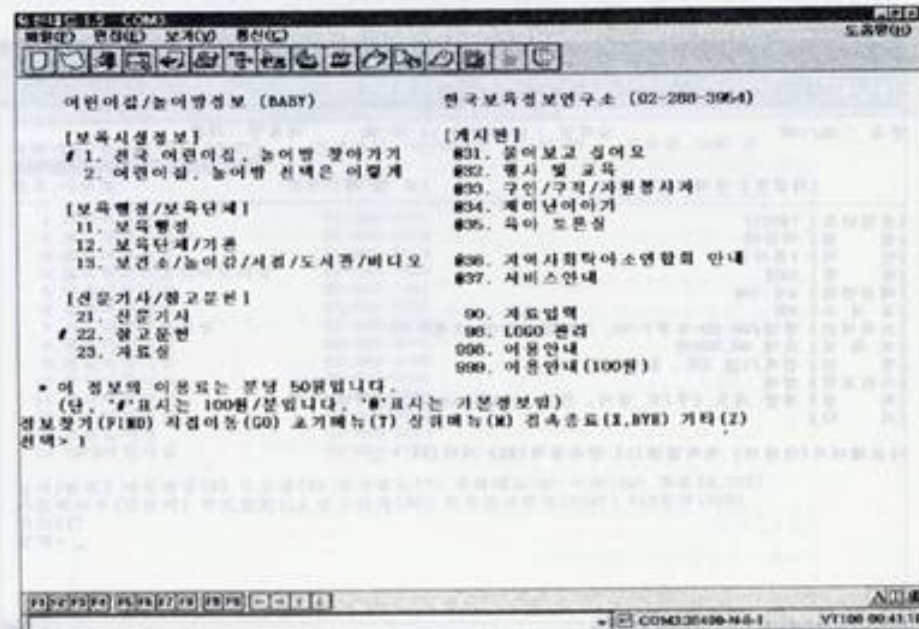
[설립년도] 1991년  
 [종 류] 백영예  
 [면 적] 1층사물  
 [인 원] 33명  
 [대상연령] 4세~7세  
 [교 사 수] 3명  
 [보육시간] 평일/08:00~오후7:30, 토요일/08:00~오후3:00  
 [보육료] 유아 80,000원  
 [영 입] 간식/1일 2회, 중식/1일 1회  
 [기입보험] 상해  
 [특 징] 개별 지도 (주1회 영어, 한문, apple card), 영역별 수업  
 [기 타]

다음페이지(리턴키) 목록열람(L) 연속출력(NS) 기타(Z) > \_

COM3:30499-N-1 VT100 90.35.76



이렇게 해서 저는 성지어머니를 감동시켰답니다. 기계치 용감한 선생님이 완존히 존경받는 순간이었지요. 참 들어온 김에 어린이집/놀이방 정보를 꼼꼼히 한번 살펴보세요. 선생님들이 사용하실 수 있는 많은 공간이 있습니다.



어린이를 지도하실 때 필요한 모든 유용한 정보들이 들어있어요. 이제부터 공부하는 선생님이 됩시다. 참 오른쪽에 있는 게시판에 @31. 물어보고 싶어요 @33. 구인/구직/자원봉사자 @34. 재미난이야기 @35. 육아토론실은 선생님들이 직접 쓰실 수 있는 곳입니다. 어떻게 쓰냐면요, 다음달 (우리네 아이들)을 기대하세요.

참! 천리안에서 사용되는 명령어들이 있는데요... 참고하세요. 천리안 아이디 가입하시면 우편으로 보내주는 책에 다 들어있는 내용중에서 오늘 사용하시는데 꼬~옥 필요한 것만 적어놔오니 이것만은 외우세요.

따뜻한 날씨에 노곤해지기도 하지만 사이버 여행으로 활기를 찾으시구요. 다음달까지 안녕히 계세요... (다음 시간엔 전화비 아끼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저런 아직 못나오셨다구요?  
x하고 엔터하고 ctrl+9...

#### 천리안에서 유용한 기초 명령어

앞의 화면으로 가고 싶다....M  
처음으로 가고 싶다.....GO TOP  
원가를 쓰고 싶다.....W



### 현장교육

## 「적응과정에서 교사간의 협력작업」

# 아이의 눈으로 본 어린이집의 적응

이윤경(아현어린이집 교사)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처음 올 경우 적응과정에 부모 교사 아이 모두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 글은 이윤경 선생님이 다년간의 경험 속에서 교사 상호간의 협력작업을 통해 아이의 적응과정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것이다.

## 1. 적응의 어려움과 중요성

나는 오늘 처음 어린이집이라는 곳에 왔다. 엄마 손을 잡고 꾸벅거리며 들어간 교실이라는 곳은 우리집과는 아주 달랐다. 장롱도 없고 옷걸이도 없고 엄마 화장품들을 놓아두는 화장대도 없고 대신 장난감이 잔뜩 들어있는 나무상자와 아주 커다란 책상과 책들이 나란히 꽂힌

나무판이 있었다. 처음 보는 아이들이 나를 둘러쳐라 쳐다보는데 그중에는 열집 사는 현아도 끼어 있어 조금 안심도 되었지만 난 아주 부끄럽고 걱정이 되었다. 나를 때리면 어떡하지?

선생님이라는 사람이 내게 와서 말을 건네는데 아주 상냥한 목소리이기는 했지만 나를 엄마에게서 떼어놓으려고 해서 깜짝 놀랐다. 엄마는 내가 여기서 즐겁게 놀 수 있을거라고 했지만 난 믿을 수 없었다. 안경 낀 저 여자가 엄마처럼 내가 배고플 때 밥을 주고 동화책을 읽어주고 간지럼도 태우고 같이 「산토끼」도 부르고 내가 응아를 하면 내 엉덩이도 닦아줄지 아직 미심쩍었다. 거기다 방한구석에서 머리가 긴 한 여자는 뽀글뽀글 오리고 붙이고 있었는데 재미있어 보이기 했지만 역시 걱정이 되었다. 엄마는 혼자인데 이 여자들 둘이서 나를 데리고 가면 엄마가 나를 다시 찾아갈 수 있을까?

## 2. 2명 이상의 교사가 한 유아에 대해 함께 적응프로그램을 적용해야 하는 경우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 엄마와 헤어져 교실에 들어오면 난 눈물부터 난다. 그런데, 내가 울면 A는 안아주고 B는 조용히 하라고 한다. "엄마 언제와? 엄마한테 갈래."하면 A는

"같이 전화해볼까?"하고 B는 엄마와 직장과 내 장난감과 과자에 대한 경제적 관계들을 알아들 수 없는 말로 장황하게 설명한다. 내가 잡바를 벗기 위해 공공거리고 있으면 A는 금방 "도와줄까?"하고 B는 "이렇게 저렇게 하는 거야. 혼자서 해봐."한다. A와 B는 내게 항상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해야 할지 너무나 혼란스럽다.

## 3. 동일 시설내에서 반이 바뀌는 경우

나는 어제부터 병아리반에서 사슴반으로 바뀌었다. 형아가 되었다는 건 신나는 일이기도 하지만 힘들기도 하다. 친구들이 갑자기 많아져서 나는 내 이야기를 선생님이 잘 들을 수 있을지 걱정스럽다. 나를 아주 예뻐해주셨던 병아리반 선생님이 보고 싶은데 계단에서 만나도 "00야 안녕?" 인사만 하고 병아리반으로 들어가 버린다. 사슴반 선생님은 우리가 형아가 되었다고 잘 안아주지도 않는데 병아리반 아이들이 내 옛날선생님 품에 안겨있는 것을 보면 샘도 나고 심술도 난다. 오늘은 동화 듣는 시간에 오줌이 마려워서 화장실을 가려고 하니깐 사슴반 선생님이 "너 어디가니? 선생님한테 말하고 허락받고 가야지."해서 놀랐다. 병아리반 선생님은 오줌 마려우면 언제든지(짜지 말고) 빨리 가서 누라고 얘기했었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혼란스럽다.

## 4. 위에서 본 아이의 적응과정에서 교사협력 작업의 여러가지 방안

①교사간의 개별적 접촉을 통한 의견교환, 정보교환의 형태 ②유아의 특성과 그 전 생활에 대해 문서화된 보고서를 이용 ③어린이집 전체교사가 함께 공동으로 논의할 수 있는 공식적인 모임을 갖는 것 ④어려움을 겪고 있는 교사에 대해 동료교사들의 따뜻한 관심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것 등이다.

## 5. 교사협력작업시 유의점

①유아에 대해 단정적인 표현이나 평가를 피하고 바뀐 환경에 잘 적응하기 위한 구체적 방안을 모색해 보는 것 ②교사간의 교육방식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하고 개성을 존중하는 가운데 비판에 대해서도 여유있게 받아들이는 것 ③적응과정에서 발생하는 반복적, 일반적 문제에 대해 기본적인 원칙을 세우고 협의된 사항을 준수하는 것 ④협력작업의 시작에서 마무리까지 지속적으로 노력을 기울이고 결과에 대해 함께 평가하고 공유하는 것 등이 있을 수 있겠다.

현장소식①

##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동근나라의 인형극 공연을 마치고-

안경자 (북부 동근나라어린이집 교사)

"선생님 인형극 시작했어요?" 인형극 공연을 시작하려면 아직 1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 아침에 눈뜨자마자 엄마를 졸라 옆집 친구들을 모시고 온 남자아이가 제일 먼저 자리를 잡는다. 작년엔 너무 늦어서 자리가 없었다는 엄마의 설명이 떨어지기 무섭게 "옛~날에 나 '피노키오' 못봤다요!" 하며 속상해 한다. 작년 첫째 인형극 제목을 아직까지 기억하고 있는 것이다.

엄마 등에 업혀 온 아이, 수줍은 아이, 겁먹은 아이, 무언가 낯선 기대와 호기심을 가지고 장난꾸러기 개구쟁이 아이들이 모여든다. 썰렁하던 동사무소 넓은 공간이 훈훈해지면서 초롱초롱한 맑은 눈빛이 넘실거린다. 아이들에게 너무나 친숙한 '아기 돼지 삼형제'를 50여분 동안 꼼짝 않고 앉아 노래부르고, 웃고, 무서워하면서 숨을 죽이고 인형극에 몰입하여 인형극 친구들과 동화되어가는 아이들 뒤편에 땀이 송글송글 맺혀 있다. 아기 돼지 삼형제를 구하기 위해 북청껏 소리도 질러보고... 인형친구들과 상호작용하던 아이들이 돌아올 때와는 다르게 씩씩한 인사를 남기고 저마다의 새로운 느낌을 가지고 돌아가는 모습이 일하는 사람의 마음을 행복하게 한다.

갈매빛 파사로움이 새싹을 감싸듯 연하디 연한 아이들의 감성이 파스한 봄벌처럼 낮게 퍼져 총총거리며 되돌아가고 다시 뿔 뿔 공간에 다음 공연은 오후 3시부터. 토요일이라 그런지 오전 공연과 다르게 초등학교 저학년 아이들이 많은

관람을 했다. 기저귀 차고 뒤뚱거리는 영아부터 초등학교 2학년까지 150여명의 아이들과 40여명의 어머님들이 함께 해 어른 아이 모두 신나게 웃고 즐겼다. "저... 저... 내일 또 와도 돼요?" 초등학교 1학년쯤 되어보이는 여자아이가 인형극에 심취해 발갛게 상기된 얼굴에 수줍음을 띄우며 내 옷깃을 잡아챈다. 아직은 아이들 스스로

문화생활을 선택하고 관람할 수 있는 환경이 아쉽다. 너무나 먼 내년과 내일을, 그리고 더욱 멀게 서 있는 아이를 위한 문화생활들을 비교할 수 없어 "내일은 인형극을 안한다." 하자 수줍게 고개를 숙여버린다.

어린이교육은 시설과 교사, 부모 등 아동 주변의 어른들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단편적이고 단기적인 시각에서 벗어나 아동과 관계된 주변 인간관계와 지역사회 그리고 지역사회의 문화적 환경이 아이들의 성장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인식하면서 동근나라어린이집에서는 지난 1996년부터 지역 어린이들에게 무료 인형극 보여주기를 지역 문화활동의 하나로 추진하고 있다. 그동안 미약하게나마 지략연과 연대하여 추진해 오던 지역사업을 어린이집 자체내에서 계획하고 꾸리게 된 것이다. 지역 어린이와 부모들을 위한 행사인 만큼 이 지역 동사무소와 지역 언론매체를 적극 활용해 장소를 제공받고 홍보를 했으며, 행사의 모든 진행은 동근나라 가족 모두가 힘을 모아 우리 가족을 대접하는 마음으로 진행되었다.

세상에 대한 호기심과 갈등 그리고 당당한 도전으로 가득한 아이들 생활에 깃털만큼 작은 하루지만 동근나라어린이집에서는 앞으로 더 좋은 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지역 어린이들에게 인형극 보여주기, 지역 어른들을 위한 노인잔치 등을 계획해, 사람은 사람과 함께 더불어 살아감을 배우고자 한다. 아이들을 키우는 교육이

어느 특정시설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어른들의 인간관계 속에 있음을 가르치고자 한다.

가끔 거리에서 낯설지 않은 아이들의 인사를

현장소식②

## 광주 '누렁소'를 아시나요?

김영금 (광주 7라벨놀이방 교사)

'96년 처음으로 광주지역위 내에 그림책나라, 한나라잡기 소모임이 만들어지면서 풍물관련 소모임도 만들어보자는 제기가 있었다. 하지만 시설내 경험이나 교사의 준비부족으로 뒤로 미루어왔으며 일단 회원들에게 강제성을 띄지 않은 상태에서 두개의 소모임이 자체적으로 진행되어 왔고 한해 활동에 있어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작년 한해의 성과를 받아 이제는 좀더 교사들의 요구에 맞는 다양한 소모임의 필요와 조직의 확대, 강화 측면 즉, '1인 1소모임 들어가기'라는 사업내용에 맞게 아직 소모임에 들어가지 않은 회원들을 묶어줄 수 있는 새로운 소모임의 필요에 의해 우리 소모임이 만들어지게 되었다. 물론 소모임이 만들어지게 된 가장 큰 요인은 우리것에 대한 관심, 그중에서도 풍물을 아끼고 사랑하는 교사들의 요구라 할 수 있다. 지금까지 4차례의 모임이 진행되어 왔는데 그동안의 모임 속에서 나왔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한다.

'송아지 송아지 얼룩 송아지~' 어른들이 아이들에게 맨 처음 가르쳐주는 노래 중에 하나인 '얼룩송아지'. 하지만 우리 소의 원조(?)는 얼룩송아지가 아니다. 그럼에도 요즈음은 우리 문화

받는다. 인형극에 참석했던 40명의 아이와 엄마 중 하나일게다. "엄마, 동근나라 선생님이다." 작은 아이의 외침이 내 등을 울린다.

전반에 무수한 '얼룩송아지'로서의 상징을 의미하는 것이다.

더불어 아이들에게 친근한 동물이며, 노동과 놀이를 하나로 결합하여 생활했던 우리 민중의 삶 속에서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동물이 바로 '누렁소'였다.

이것들은 우리가 지향하고자 하는 소모임의 내용이기도 하다. 이렇게 좋은 의미를 담고 있음(?)에도 주위에선 촌(?)스럽다는 눈총도 많이 받았다('누렁소'는 아직 소모임 정식 이름이 아니라 가칭이다).

소모임의 구체적 내용은 "풍물을 통해 교사개인의 욕구를 채워주고 교사의 자질을 높인다. 교육현장 속에 공동체문화를 보급·확대한다. 교사조직을 더욱 강화한다" 하는 목표를 가지고 한달에 한번은 풍물과 관련된 내용을 가지고 토론회를 갖고(자료정리도 함께 한다)전래놀이, 민요 포함) 또 한번은 풍물을 직접 배우는 방법으로 진행해가기로 했다.

체계는 소모임장, 교육부장, 기능부장, 총무로 총회원은 7명으로 처음 시작하는 소모임치고는 많은 수의 인원이 출발을 하게 됐다. 회원 모두 개인적으로 하고 싶던 활동내용이었고 이 활동을 통해 교사개인은 물론 아이들 교육에 그리고 광택위 조직발전에 도움이 되었으면, 우리 장단과 소리에 저절로 어깨가 들썩이며 민요 한 대목이라도 아이들 입에 오르내릴 수 있었으면 하는 것이 우리의 바람이다.

지금은 출발점에 서있지만 앞으로 아이들의 삶의 터를 더욱 풍요롭게 만들어 줄 수 있는 그런 소모임이 되리라 자신을 가져본다.

▼▼▼▼▼  
좋은그림책 소개

# 바닷물고기 덩치

정태영 글·그림/도서출판 보림/6,000원



아이들에게 상상력을 길러주는 그림책!

정말 많은 그림책들이 시중에 나와있지만 좋은 그림책을 고르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도 그림책에 대한 관심이 많아져서 점점 좋은 그림책이 많아지는 것은 참 다행한 일이죠. 그중에서 한권을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바닷물고기 덩치』는 바닷속에 살고 있는 배불퓁이에 먹보 물고기의 이야기입니다.

『덩치』는 늘 '뭐 맛있는 것이 있을까?'하고 바닷속을 두리번 두리번거리다 닥치는 대로 아무거나 먹어치우는 바닷물고기지요. 다른 친구들이랑은 놀지도 않고, 사람들이 버린 강통이며 먹다 버린 사과, 심지어는 인형, 신발 한짝, 물안경 따위도 모조리 꿀꺽 꿀꺽 혼자 다 먹어 치우고는 배가 불러지면 잠을 자버립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이예요? 배가 너무 너무 아픈 거예요. 배가 너무 아파 잠에서 깬 '덩치'는 고래 할아버지를 모셔오고, 의사선생님께서 '덩치'의 등을 톡톡 두드리시자 "으엑! 으엑!" 그동안 먹었던 강통이며 먹던 사과, 인형, 물안경 등을 모두 토해냅니다. 그러자 바닷물에 온통 이상한 냄새가 퍼져 나가는 겁니다. 이 냄새를 맡은 다른 물고기 친구들은 '아휴 냄새', '더러워'하며 도망가기 시작하고, 고래 할아버지는 '덩치'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자주 이런 것들을 바닷속에 버리는데 우리 물고기들이 이런걸 먹었다가는 큰일이 난다. 알겠니?"

다음날 '덩치'는 빗자루를 들고 열심히 청소를 합니다. 이를 본 다른 물고기 친구들도 함께 청소를 하지요. '덩치'와 물고기 친구들은 자신들이 사는 바닷가를 깨끗이 하자고 얘기하며, 모은 쓰레기들은 다른 아기 물고기들이 먹지 못하게 깊은 동굴속에 묻어둡니다.

이야기가 다분히 재미있고 교육적이기도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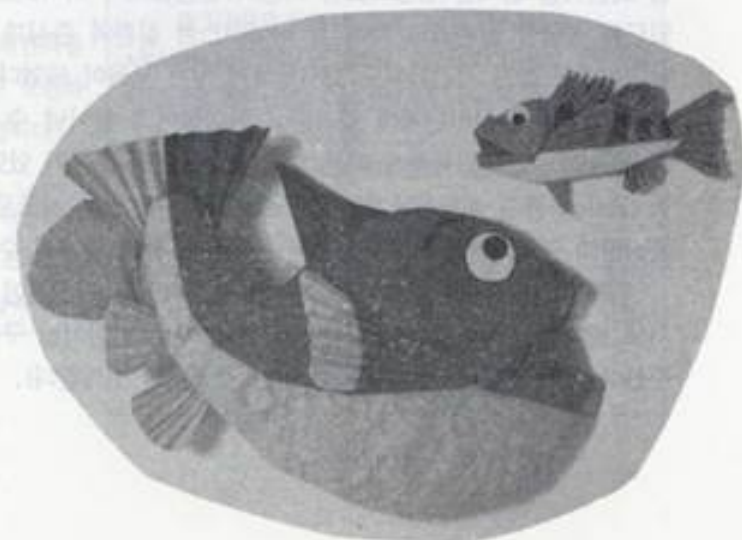
책을 다 읽어주고 나면 아이들은 "왜 배가 아파요?" 그러면 옆에 있는 친구는 "많이 먹어서야." "아냐, 신발짝을 먹어서야." 등 자기들끼리 의견이 분주합니다. "그러니까 바다에 아무거나 버리면 안돼요."라고 말해주진 않았지만 이 한권의 그림책을 통해 아이들은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생각하리라 믿습니다.

책을 읽을 때 바닷물고기 덩~치(♪~♪)하고 음률을 넣어 읽어주면 다들 좋아합니다.

그림도 화선지와 부직포를 이용하여 만들어 선명하면서도 색상이 부드럽워서 보기에 편안하고, 또 아이들이 좋아하는 색을 써서 전체적으로 환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데다 등장인물들이 귀엽고 특색있게 표현되어 아주 좋습니다(귀엽다고 해서 사실적이지 못한 것은 아니지요).

글씨가 적어서 읽어주기에 좋고 3~4세 아이들에게 적합하다고 봅니다.

소개 : 박은하(인천 그림책소모임 회원, 세쌍둥이어린이집 교사)



## 건강만들기

## 보육시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보육인과 의료인의 만남

편집부

4월 19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의료인과 보육교사들의 뜻있는 만남이 있었다. 이 자리는 보육시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도모하자는 취지로 마련되었던 바,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제안으로 서울과 부산에서 동시에 이루어졌다. 서울에서는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공동육아 소속 원장, 교사 40여명이 참석하여, 앞으로 의료인과 보육인이 함께 협력하여 건강관리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보육시설과 의료기관간에 협력체계를 만들어가기 위한 방안이 논의되었다.

사회변화의 추세에 따라 점점 늘어나고 있는 맞벌이부부가정 자녀들을 보호, 교육하고 있는 보육시설은 이제 교육기능의 강화와 함께 보호기능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행해나갈 필요가 있다. 보육시설에서는 아이들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적절한 환경, 음식, 수면과 활동을 제공하여 아이들이 적당한 몸의 균형상태를 유지하도록 함과 동시에 심리적 안정감을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하여야 한다.

이번에 인의협은 보육시설이 이러한 역할을 보다 충실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개별시설마다 건강담당교사를 두어 일상적인 건강관리와 질병에 대한 사전 사후 관리를 할 것과 보육시설이 주도로 필요할 시에 언제라도 상담, 이용할 수 있는 지역의료기관을 선정하여 주치의를 확보할 것을 제안하였다.

당일 행사는 1부 강좌와 2부 토론으로 진행되었는데, 1부 첫번째 프로그램으로 보육시설 아동에게 흔히 나타나며 다른 아동에게도 감염되기 쉬운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인의협 회원이신 변재준(삼성의료원 가정의) 선생님께서 바이러스성 질환에 대한 전반적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세균성 질환과의 차이점, 바이러스성 질환의 증상과 합병증을 OHP자료를 통해 알기 쉽게 설명해주어 짧은 시간임에도 교사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다.

이어, 아직 정리단계에 있지만 어린이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각종 질환과 증상, 안전사고 등의 유형별·사례별 목록에 따른 설명자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이후 이 자료가 완성되면 어린이집 교사는 물론 부모들에게도 큰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이 자료는 인의협 통신망과 본회, 공동육아 통신망을 통해서도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강좌 마지막 순서로, 이번 행사의 실무책임을 맡으셨던 김유호(유소아과 원장) 선생님께서 행사에 참여한 어린이집에 전달된 구급함을 예로 '어린이집 구급함 꾸리기'에 대해 간략한 설명을 해주셨다(이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이번 소식지에 소개한다).

2부는 보육시설 아동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제안과 토론의 시간이었었는데, 인의협은 이번 행사를 마련하게 된 취지설명과 함께 다음과 같은 제안을 하였다.

첫째, 현재 우리나라는 주치의제도가 확립되어있지 않으나, 필요성을 느끼는 보육시설에서 주도로 인근지역에서 주치의를 확보하는 작업에 들어가자.

둘째, 보육시설마다 건강담당교사를 선정하자. 가능하면 모든 보육시설에서 건강담당교사를 두는 것이 바람직하겠으나 우선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 프로그램 개발에 조직적인 참여가 가능한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와 공동육아연구회 소속 어린이집부터 시작하여 확산시키자. 각 보육시설은 건강담당교사의 교육등을 지원하고 건강담당교사는 아이들의 건강관리 계획을 세우고 이에 필요한 각종 서식에 따른 기록을 반드시 하며, 무엇보다도 건강일기를 써서 일상적이고 지속적인 관리를 해나가자.

셋째, 어린이집 건강교사와 의료인이 협력하여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이를 위하여 건강교사와 의료인간에 일정기간동안 목적의식적이고 지속적인 만남의 자리를 마련하자.

인의협은 위와 같은 공동작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어린이집 진료활동, 건강교사 실무교육과 더불어 건강관리를 위한 각종 서식의 표준화작업을 실시하며 의료정보매체와 두 단체의 소식지를 통해 교육과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보육시설에서 절실한 필요성을 느끼고 있던 건강관리의 문제를 함께 해결해나가는 인의협의 제안을 감사하게 받아들이며 보육시설의 적극적인 참여와 실천으로 좋은 결실이 맺어지기를 바란다.

##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는?〉

1987년 월남해 전제되었던 민주화운동 속에서 우리나라 소외계층의 건강한 삶을 영위하는 젊은 의사들이 중심이 되어 결성되었다. 평화와 인류애에 기반을 둔 공동체의식 함양과 사회참여를 통하여 이 땅의 의료소외를 극복하고 의료체계의 합리적 개선을 통하여 국민 모두의 총체적 건강을 지향한다는 목적으로 창립된 이래 활발한 사업을 펼쳐왔다. 현재 1000여명의 회원이 있으며 공동대표는 고현석(인제대의대 병방위과 교수), 심재식(한국보훈병원 산부인과장), 김종구(사당의원장), 이준구(세브란스 병원 내과 전공의) 4분이다. 주요활동은 다음과 같다.

## 〈별첨자료〉

## 1. 기본진료기록부 양식

- 이 진료기록부는 어린이집에 입소한 어린이를 향후 관리하기 위하여 부모나 관리자가 보완하여 매 진료시마다 첫장에 부착하여야 합니다.

## 2. 건강기록부 양식

- 이 기록은 건강담당교사가 보관하며, 어린이가 다른 시설로 이동할 때 아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해당시설에 우송 바랍니다.

- 대외사업: 성병동 전염병 역학조사, 원전레이온 사건, 중금속 및 유기용제 등의 산업재해 직업병 대책활동
- 봉사활동: 의료취약지 진료봉사, 수해지역 진료봉사, 건강상담
- 의료보험: 통합임원회, 의료전달체계, 의료의 형평성, 의료개혁 등 의료계 개혁운동
- 학술토론회 및 월례강좌: 지방자치와 보건의료, 외국인 노동자의 건강문제
- 출판 및 홍보: 격월간 회지-『사람과 의료』, 단행본-『장애자의 권리, 의료! 이렇게 개혁합시다』, 『잘못 알려진 건강상식 100』, 『꼭 알아야 할 건강상식 105』, 자료집-『지방자치와 보건의료』 등 다수

# 1. 기본진료기록부

|                                         |          |                 |       |
|-----------------------------------------|----------|-----------------|-------|
| 기록번호 :                                  |          |                 |       |
| 이름 :                                    |          |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 |       |
| 보호자 이름 :                                |          | 연락처 :           |       |
| 어린이 특징                                  |          |                 |       |
| 체중 :                                    | kg       | 신장 :            | cm    |
| 두위 :                                    | cm       |                 |       |
| 식사내용 :                                  | 출생시 체중 : | kg              | 혈액형 : |
| 신체적 특성 :                                |          | 별명 :            |       |
| 과거병력 :                                  |          |                 |       |
| 예방접종내역 :                                |          |                 |       |
| B.C.G. ( ) DPT ( , , , ) 소아마비 ( , , , ) |          |                 |       |
| 홍역, 볼거리, 풍진 ( , , , ) 간염 ( , , , )      |          |                 |       |
| 결핵반응검사 ( )                              |          |                 |       |

## 자연태생결종 및 건강

## 부제 (SIS)

|        |               |
|--------|---------------|
| 진찰소견   | 외형 :          |
|        | 영양상태 :        |
|        | 머리, 목, 눈, 귀 : |
|        | 치아 :          |
|        | 가슴 :          |
|        | 폐 :           |
|        | 심장 :          |
|        | 복부 :          |
|        | 간 :           |
|        | 비장 :          |
|        | 신장 :          |
|        | 탈장 :          |
|        | 외부성기 :        |
|        | 항문 :          |
|        | 팔과 다리 :       |
|        | 피부 :          |
|        | 신경학적 소견 :     |
|        | 정신, 신체적 발달 :  |
|        | 언어발달 :        |
|        | 응답이 :         |
|        | 한 단어 :        |
|        | 단어조합 :        |
|        | 3년말 문장 :      |
|        | 행동발달 :        |
|        | 발달연령 :        |
| 의견요약 : | 의사서명 :        |
|        | 의료기관명 :       |
|        | 날짜 :          |

## 2. 건강기록부

|        |          |          |
|--------|----------|----------|
| 이름     | 생년월일 :   | 성별 :     |
|        | 보호자 이름 : | 주민등록번호 : |
|        | 주소 :     |          |
|        | 연락처 :    |          |
| 신체특징 : | 체중 :     | 신장 :     |
|        | 치아상태 :   | 혈액형 :    |
|        | 선호음식 :   | 알레르기물질 : |
|        | 별명 :     |          |
| 과거병력 : |          |          |
| 현병력 :  |          |          |
| 의견요약 : |          |          |
| 작성자 :  |          |          |
| 의사 :   |          |          |
| 시설장 :  |          |          |
| 시설명 :  |          |          |
| 날짜 :   |          |          |

## 개인예방접종 및 검사

| 종 류         | 1회 | 2회 | 3회       | 추가 | 추가   |             |  |
|-------------|----|----|----------|----|------|-------------|--|
| DPT (디피티)   |    |    |          |    |      |             |  |
| 경구용소아마비     |    |    |          |    |      |             |  |
| 간염          |    |    |          |    |      |             |  |
| 홍역          |    |    |          |    |      | 수두          |  |
| 홍역, 풍진, 볼거리 |    |    |          |    | 장티푸스 |             |  |
| 비시지 (BCG)   |    |    |          |    |      |             |  |
| 결핵반응검사      |    |    |          |    |      |             |  |
| 일본뇌염        |    |    |          |    |      |             |  |
| 독감 (인플렌자)   |    |    |          |    |      |             |  |
| 구충제         |    |    |          |    |      |             |  |
| CBG         |    |    | UA       |    |      | HBsAgA<br>b |  |
| Stool exam  |    |    | Bl. Type |    |      |             |  |

## 어린이집 구급함 꾸리기

김유호(유소아과 원장)

아이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사고에 대비한 비상약품을 두는 경우를 흔히 봅니다. 열이 나는 경우가 많은 집에서는 해열제를 한 두가지, 체했다고 손발을 따주고는 먹이는 기용환이나 소화제, 설사할 때 먹인다는 미아리산, 기침할 때 지미코프, 콧물약 액티피드, 상처가 났을 때 바르는 후시딘 연고나 흉터도 줄여준다는 복합마데카솔 연고, 짓무르는데 바르는 페나텐 연고 등등... 집집마다 나름대로의 처방으로 비상약품을 꾸려 사용하고 있지만 대개는 신문의 광고나 방송의 선전에 의존하여 구입하게 됩니다. 한두번 사용하면서 우리 아이에게 잘 듣는 약품을 알게 되는 가정과는 달리, 어린이집에서는 여러 아이들에게서 일어날 수 있는 다양한 증상들과 사고에 대비하여 건강 담당 선생님께서 구급함을 꾸려 사용하는 것이 편리합니다.

구급함에는 의료용으로만 사용하도록 용도를 정해놓은 기구와 소모품, 상처나 피부질환에 사용되는 약용제와 먹이는 내복약으로 구성합니다.

기본기구로는 소모품을 자를 때 사용하는 가위, 집어들 때 사용하는 핀셋, 입안이나 좁은 상처를 볼 때 사용되는 연필 모양의 펜라이트, 목 안을 볼 수 있도록 혀를 누르는 설입자, 체온을 재는 체온계를 준비하세요.

소모품으로는 작은 상처에 붙일 수 있는 일회용 밴드, 넓은 상처에 사용하는 면 거즈, 외용제를 적시거나 바를 때 사용하는 절단된 솜과 면봉, 화상으로 벗겨진 피부를 보호하는 화상 거즈, 상처 부위를 누르거나 고정시킬 때 사용하는 압박붕대가 있습니다.

외용제로는 긁히거나 찢어진 상처에 바르는 소독 물약(포타딘 용액), 끓거나 물린데 바르는 항생제 연고(젠타마이신 연고), 접촉성 피부염이나 기저귀 발진에 사용되는 스테로이드 연고, 기저귀 발진과 함께 있는 곰팡이를 처리하는 항진균제(마이코스타틴 연고) 등으로 구성합니다.

내복약은 외용제에 비하여 의사의 처방없이 사용하는 데에는 무리가 있지만 정해진 용량 이하로 짧은 기간(1-2일)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안내하려 합니다.

소화제로 돈페리돈이라는 약은 흔히 체했다는 구토 증상이 있을 때 사용합니다. 사용 중 설사나 보채는 부작용을 보이는 경우가 있기는 하지만 하루에 10kg의 체중을 기준으로 1개를 사용합니다. 예를 들어 5세 어린이가 20kg이라면 하루에 2알을 4회로 나누어 한번에 반알을 6시간 간격으로 먹입니다. 3개월 이하의 아이에게는 사용하지 마십시오. 벤트록스 분말은 정장제로 해열제나 항생제를 사용할 때 함께 먹이는데 나이에 관계없이 한 번에 소량(커피 수저로 1/4정도) 먹이세요.

해열 진통제로는 부루펜 시럽(한번에 0.3mg/kg), 아세트 아미노펜 80mg(한번에 8mg/kg),

씨스펜 좌약(약을 먹이기 힘들 때 항문에 넣어 열을 떨어뜨리는 좌약 해열제)를 사용하는데, 열이 나면 우선 미지근한 물로 목과 양겨드랑이를 적셔 열을 떨어뜨려보고 열이 38.5도 이하로 내려가지 않을 때 진통제를 사용해야 하며 하루 3회 이하로 사용하되 두가지 약을 동시에 사용하는 방법은 좋지 않습니다.

설사를 할 때는 음식을 미음이나 죽, 분유를 먹고 있는 아이일 경우는 설사를 할 때 먹이는 분유로 바꾸어 먹이면서 하루에 3회 이상 설사를 하는 경우 리크리텐(한번에 0.4mg/kg씩 하루에 2번)을 사용하세요. 전해질 분말(보리차 500ml에 한봉지를 풀어 수시로 먹임)은 설사로 탈수가 되는 것을 우려하여 먹이는 이온 음료수로 시증의 이온음료를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기침을 할 때 흔히 사용하는 약으로 암프로롤 시럽(한번에 0.5mg/kg 하루에 4번)을 소개합니다. 대개의 기침이란 생리적으로 가래를 배출하려는 좋은 현상이어서 기침 자체로 일상생활에 지장을 주는 경우에 주로 사용하시고 기침약들은 손떨림(흥분, 보챔)의 부작용이 있습니다.

변비나 변비로 인한 복통을 해소하기 위하여 관장약(그리세린 1mg/kg)을 구비하고 항문에 넣은 뒤 최소 5분 이상 대변보는 것을 참도록 한 후 배변시켜야 합니다.

항생제라는 것은 세균을 죽이는 약입니다. 따라서 세균에 의한 질병이라는 것이 확인된 후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적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상처가 나거나 끓거나 하는 외상과 열이 3일 이상 나거나 코같은 점액성 대변을 볼 경우 사용합니다. 여기서 소개되는 아복사실린(과목신:하루에 25mg/kg을 4회로 나누어 복용)은 세균성 상기도 감염(편도선염, 후두염)이나 외상으로 인한 상처 기관지염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항생제로 열이 나며 점액성 설사를 할 때나 요도염이 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사용합니다. 페트린은 재생불량성 빈혈을 일으킬 수 있고 과목신은 약발진이나 설사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의사의 지시대로 사용하면 질병을 치료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구급함에 약이 있다고 해서 선뜻 사용하기에는 생소함과 두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고 이들 말고도 현재 사용하고 계신 나름대로의 의료용품이 어린이집의 응급처치에 적절하게 대처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국제교류

일본교사 연수를  
마치고

이주영 · 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일본 히로시마의 에육원보육소 선생님들과의 국제교류는, 작년 보육교사 여름연수때 강의를 해주신 김향미선생님 교수선생님의 부탁으로 본회 사무국에서 연수 내용과 시설 등을 연결해주고 수원지역위원회와 어계동무어린이집에서 착안을 지고 실질적인 연수를 받게 되었다. 에육원보육소는 김향미선생님이 일본유학중 선생님의 아이를 맡겼던 보육소로, 이후 관계를 계속하던 중 한국 보육시설을 견학하고 싶다는 의사를 김향미선생님께 밝히셨고 김향미선생님은 고민을 하시다 본회로 연락을 하셔서 우리가 연수를 받게 된다는 뜻을 전달하여 이번 연수가 성사되게 이르렀다.

지난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히로시마 지역의 에육원이라는 보육소의 원장 및 교사 3명이 한국을 방문하였다.

우리 수원지역위원회는 아직까지 일본교사들의 연수를 받아보지 않았고 숙박이 가능하다는(?) 조건 하나로 연수를 받기로 하였다.

한번도 연수를 받아본 경험도 없었고,

또 일본어라 하면 인사말도 제대로 못 조리지 못했을 뿐더러 한국사람이면 누구나 갖고 있는 일종의 일본이라는 나라에 대한 반감으로 교사들은 긴장하였고 짧은 시간에 일본어를 아는 사람만 만나면 틈틈이 물어보면서 맞이할 준비를 하였다.

첫날 공항에서는 얼굴을 잘 몰라서 잠

깐 해했지만 박정애 조직부장님과 이번 연수를 연결해 주신 김향미선생님 가족, 그리고 남미영회장님의 부탁으로 봉고차를 몰고 오신 조점숙 선생님과 함께 한자리에서 만나 인사를 나누었다. 처음엔 다소 나이가 드신 선생

님이 왔구나 생각하고 차안에서 몇마디 안되는 콩글리쉬로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두 교사 선생님들은 우리들과 같은 또래로 우리 또래가 가지고 있는 공통의 관심사들이 많아 금방 친해질 수 있었다. 연수단 일행은 토요일 오후 교통난을 헤집고 수원으로 가서 저녁식사를 우리의 전통음식으로 맛있게 먹고 용기종기로 자리를 옮겨 차를 마시며 이번 연수일정에 대해 나누며 휴식을 취하였다.

다음날 일요일은 수원지역 교사들과 일본교사들의 공동야유회가 있었다. 우리 교사들이 정성스럽게 싸온 도시락을 보고

일본교사들은 탄성을 질렀는데 특히 김치에 대한 관심이 대단해서 우리가 매일 담가 먹으면서도 별스럽지 않게 생각했던 음식이 얼마나 소중한 먹거리인가 새삼 느껴보기도 하면서...

김향미선생님의 도움으로 통역을 통해서 많이 전해진 우리들은 장터에서 빈대떡과 동동주를 얼굴 붙히며 마시면서 즐거운 하루를 보냈다.

월요일 아침에도 부지런히 일어나 단장을 마친 교사들과 아침식사를 마친 후 용기종기 문을 열었다. 오전시간 내내 직접 엄마가 아이를 맡기고 아이들이 어린이집에 와서 노는 모습을 보면서 말은 안통하지만 아이들과 놀아주시면서 질문도 역시 많이 하고 대답해주고를 여러번...

점심식사 시간이 되어 아이들과 같이 점심을 먹고 과천 청사어린이집을 가면서 용기종기는 자모, 아



일본에서 어린이날 각 집마다 걸어두며 어린이의 건강을 비는 일종의 연과 같은 것인데 피란 물고기는 남아, 빨간 물고기는 여아, 오색띠는 오복을 상징한다고 한다. 우리도 일본 교사들과 함께 우리 아이들의 건강을 함께 기원해보았다.

이, 선생님들이 모두가 같은 분위기가 금방 느껴진다며 소감을 얘기했다. 또 그곳 에육원은 0~3세까지의 영아가 60명이 있고 교사가 23명이어도 아이들에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이 무척 많은데 용기종기는 너무나 자유스럽고 자연스러워 그 분위기가 부럽다고 하였다. 그런데 한가지 의아해하며 질문을 하는 것이 일본에서는 영아들이 잘 때 우유병은 전혀 묻지않고 자게 하는 것이 보통인데 여기서는 우유병을 왜 묻

리느냐는 것이다. 차이에 안좋은 영향을 끼치는 하지만 글썄... 항상 그래왔었던 것을 의아해 하니 우리도 새삼 다시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기도 하였다.

우리나라 보육시설에서도 시설로는 정말 으뜸에 속하는 청사어린이집(직장보육시설)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처럼 일본 교사들은 우리나라의 보육정책, 교육방침 등을 질문하였고 청사어린이집 원장선생님도 친절하고 자세히 설명을 해주셨다. 시설을 둘러보고 선

물을 나누고 계속적인 교류를 약속하며 아쉽지만 청사어린이집을 나와 우리와 한식구인 울망줄망어린이집을 둘러 그곳에서 쓰고 있는 아동계별일지를 매우 유심히 보았으며 다시 용기종기로 돌아와 자모들과 간담회를 나누었다. 수원에서의 마지막 만찬(?)은 자모회가 너무 늦게 끝나는 관계로 짜장면 등 중국요리의 진수를 맛보는 것으로 하였다.

다음날 서울로 떠나는 길에 교사들과 인사를 나누던 엔나원장선생님, 나이또선생님, 야마모토선생님은 결국 눈물을 흘리시며 헤어짐을 섭섭해했다. 차에 올라서도 화장이 얼룩지도록 우셨을 정도였다. 별로 잘 해드린 것도 없는 데... 우리 교사들도 못내 아쉬움을 나타냈다.

강동의 공동육아 어린이집인 재미난어린이집 견학과 롯데

↓ 일본교사들과 민속촌 관광중에 잠깐 포즈를 취했다.





← 이케동무어린이집에서  
보육간담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였다.

백화점에서의 쇼핑을  
마치고 어깨동무어린  
이집에서 그동안 바  
쁜 일정 때문에 일본  
교사들과 상견례를  
하지 못했던 남미  
영희장님 이하 사무  
국식과 어깨동무  
교사들, 김향미선생  
님과 함께 간단한 간  
담회를 가졌다. 우리  
고유의 놀이감과 그  
립책 선물을 받으시  
고 기뻐하며 아마모  
또선생님이 일본 옛  
이야기 그림책을 직  
접 읽어주시기도 하셨  
다. 언어는 못 알아  
듣지만 책장을 넘길  
때마다 아하~하고  
무슨 얘기를 하는지  
급방 이해할 수가 있  
어서 정서의 공통되

는 부분도 많이 있음  
을 느낄 수 있었다.  
맛난 불고기 저  
녁식사를 마친 후 호  
텔로 가는 자리에서  
도 눈물짓는 선생  
님들 웃는 얼굴로 배  
웅하고 '우와~이제  
끝났구나' 생각하니  
담장은 너무나 즐거  
분하고 시원함에 날  
아갈 듯 했지만 다음  
날부터 지금까지 우  
리 교사들은 그 며칠  
간에 대해 얘기하고  
또 얘기한다. 분명  
정서적으로 통하는  
면도 있고 또 습관이  
매우 다른 것도 있지  
만 아이들을 훌륭히  
키우고자 하는 그 열  
정과 순수함은 우리  
서로의 모습에서 쉽

게 느낄 수 있었다.  
수원교사들은 이  
제 자신에 차있다.  
다음에 또 오시면?  
좀 나아진 일본어 실  
력으로 좀더 서로의  
이야기를 많이 나누  
려 하겠지? 그리고  
우리도 일본을 방문  
할 기대를 가져본다.  
우리 수원지역에  
국제교류의 기회를  
주어 시야를 넓힐 수  
있게 해준 지택연 사  
무국에 감사드리며  
김향미선생님, 방문  
한 어린이집의 선생  
님들, 통역을 맡아주  
신 분들, 그리고 3박  
4일간 가정을 방치  
(?)한 채 일본선생  
님들과 함께 숙식을 하  
며 정성을 쏟은 수원

지역선생님들 모두모  
두 수고하셨다는 말  
씀과 감사의 마음 전  
한다.  
그리고 몇년간  
일본 오사카와의 교  
류에서 히로시마로  
확대된 국제교류를  
통해 우리 보육의 발  
전에 기여하기를 바  
라며 오늘도 불렛살  
을 향해 아이들과 함  
께 나선다.

## 제 1회 보육교사 일본연수

일 시 : 1997년 6월 5일(목)-6월 8일(일) 3박4일  
장 소 : 일본 오사카  
비 용 : 850,000원(여권비용 50,000원별도)  
"신청금 10만원 선납, 75만원 후납"  
신청마감 : 5월 20일까지  
기 타 : 연수증 수여, 기념사진 증정, 기념품 증정, 자료집 증정.

### ▶보육교사 일본연수를 기획하면서...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어린이집 선생님들을 위한 일본연수를 준비하였습니다.  
일본은 우리나라와 지리적으로 가까운 것은 물론이고 보육운동사적으로 볼때에도 상당히 많은 유사점을 갖고 있는 곳입니다. 본 연수를 기획하면서 일본의 보육 현실을 알아보면서 우리 나라에서도 새롭게 조명되고 있는 혼합연령보육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오사카 지역을 둘러보기로 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우리 나라의 보육 현실의 발전을 위해, 일본 연수를 기점으로 다른 나라의 모범적인 사례들을 선정하여 둘러볼 수 있는 기회를 계속 갖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다매와리보육이란?

참조: "일본보육현장을 가다" 유아정보 1996년 1월부터 연재

"다매와리"란 적역하면 "종적보육"이라 하는데 즉, 연령별 반구성이 아닌 3,4,5세가 혼합으로 반편성을 하여 보육하는 혼합연령보육을 말합니다. (이하 혼합연령보육) 이는 일본의 사회적 상황과 함께 주목받기 시작했는데, 독선자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 최근의 일본의 추세이고 결혼을 해서 아이를 갖는다 해도 대부분이 한 자녀만 두기 때문에 아이들이 자기만 알고 독선적이거나 개인적인 성향이 강합니다. 이에 아이들의 장래를 걱정하면서 연령별 또래교육도 중요하지만 오히려 동생들과의 관계를 잘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유아인 3,4,5세의 혼합연령으로 반을 구성하여 보육하게 된 것입니다. 혼합연령보육을 하는 보육소도 각기 서로 다른 교육적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 ▶연수 일정

다매와리보육에 대한 강연/보육소방문 / 보육소선생님들과의 간담회와 유아교육 강습회 / 리포르시스팀 오사카 어린이교육센터 견학 / 국제아동문학관 / 민족박물관 / 이케노진테스 유아교구백화점

새로운 출발

## 농촌보육 현실, 우리 이렇게 시작했다

이영숙 · 충북 영동 민들레어린이집 운영위원

**지**원이 엄마는 걱정이 태산같다. 남편은 동만 트면 일하러 나가고 그도 빨리 밥먹은 상 견어치우고 나가서 밭일을 해야 일이 줄어들텐데 아이는 보채고 그렇다고 들춰 업고 가자니 일은 제대로 될 리 없다. 지원이를 밭에 데리고 간 적도 한두번이 아니다. 갈 적마다 애를 달래놓고 일을 하려니 급한 대로 과자 부스러기만 주게 되고 가뜰이나 먹성이 부족한데 점점 아이는 입맛을 잃어가고 이것저것 챙겨주지도 못해 어미 마음은 여간 찜찜하지 않다.

**강**북이네 집은 몇 년째 하우스 딸기와 다른 채소농사를 한다. 딸기를 심어 놓고 손질을 할 때마다 강북이와 동생 현북이는 엄마 아빠가 일하는 딸기밭에서만 있기가 싫증이 나는지 하우스 옆 위험한 도랑에 자주 가려 한다. 일을 할 때면 간혹 아이들을 집에 두고 밖으로 문을 잠그고 밭에 간다는 여성농민의 얘기도 듣고 있지만 강북이네 엄마는 그렇게는 못할 짓이다 싶어 할 수 없이 밭으로 데리고 다니면서 일을 해왔다. 그러나 집이든 밭이든 아이들끼리 놀려두고 일을 할 때마다 불안하기는 마찬가지다.

**중**주와 새봄이네는 할머니가 계셔서 아이들 보기는 할머니 품이 돼버린지 오래다. 하지만 할머니께서도 아이들

이 한두살 커가면서 할머니는 바쁜 철에 집에만 있기가 미안하신지 아이들끼리만 놔두고 집 근처에서 개밥도 끓이시고 풀도 베시고 좀처럼 가만히 계시질 않는다. 아버지는 이런 때마다 종주엄마한테 핀잔을 주곤 한다. "왜 어머니를 애만 보시게 하는 것도 모자라 일까지 하시게 하냐"고. 엄마는 이 말이 너무 서러워 아예 농사일도 멈추고 애만 보면서 가사일만 하겠다고 맘먹는다. 시어머니께서 아이들을 돌봐주시는 것이 그리 맘 편하지만은 않은 채 하는 수 없이 밭일을 하지만 고작 남편에게 듣는 말이라니... 온갖 역장이 무너진다. 그래도 남편을 이해하며 이것저것 이겨내면서 일해왔는데, 농촌이 이렇게 힘들어도 내나라 내국민 먹거리를 청킨다는 자부심(?)으로 견뎌왔는데 가장 가까운 그이는 그냥 내키는 대로 애꿎은 마누라에게 자신의 스트레스를 모두 풀어버리는 듯하다.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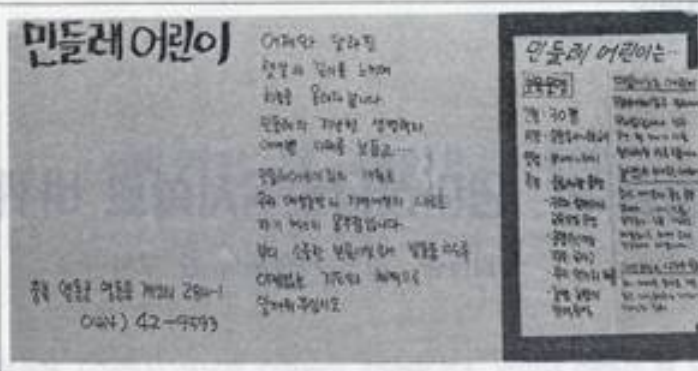
**이**모두가 여기 나오는 사람들만의 일일까? 우리 여성농민들은 남편들을 서로 알고 지낸 면식으로 서른명 가까이 여성농민모임도 만들었고, 모였다 하면 육아문제만이라도 같이 해결할 수 없을까에 대해 결론도 나지 않은 상태로 많은 얘기를 나눴다. 한해두해

지나면서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들기 시작한 것은 '96년 초이다. 농한기를 이용해 영동곶감을 직접 접어 포장해서 서울로 몇차례 직거래도 해보

고, 감정도 만들어 팔고, 여기저기서 닥치는 대로 옷을 모아다가 알뜰 바자회도 해보고, 김·젓갈도 바리바리 팔아 두번의 겨울을 지나는 동안 700여만원의 수익금을 모았다. 우리의 뜻이 알려지면서 어느 교회의 목회자분이 선뜻 자택을 빌려주셨노라고 제의했고 우리 여성농민들은 장소가 마련되어 무척 좋아하면서도 이제부터는 더욱 책임있는 태도로 임해야 함을 절감하며 빌려주시는 분께 어떻게 고마움을 표현할지 몰라했다.

우리에게 땅이 있어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출발하면 그야말로 금상첨화겠지만, 어찌하나 농촌보육시설은 시급하고 빌려주시겠다는 분도 있는 지금이 우리에게 최적기다라고 믿고 일을 빨리 추진했다.

농촌탁아준비위원회 구성, 보육교사 3명 모집, 내부 보수 및 시설 설비공사와 함께 실내놀이 공간구성, 기타 최소한의 집기와 놀이기구를 갖추고 군청으로부터 인가도 받고 드디어 3월 5일 개원하였다. 그간 준비는 농한기를 최대한 활용했고 각자의 농사에 지장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며 했다. 준비위원회는 개원과 함께 운영위원회로 계속 꾸려나간다. 실내 29평의 놀이공간으로 30여명의 아이들이 놀기엔 그리 넉넉치 않은 공간이나 우리 민들레어린이집은 오늘도 아이들의 환호작약으로



생기가 감돈다. 모두가 우리의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지만 국공립과 민간 보육시설이란 차이로 그 차별대는 정말 말로 다할 수 없다. 국공립보육시설은 교사인건비,

교재교구비, 설비보조비, 간식·중식 보조 등에다 군내에 위치하면 농촌보육시설로 인정되어 취사부 인건비, 차량운행비까지 두루 보조를 받고 있지만 우리 민들레어린이집은 유일한 민간보육시설로 오직 저소득층 자녀(월수입110만원 이하)에 대한 지원만 다달이 나오는 형편이다. 결국 부모님의 보육료 부담은 농촌사정을 고려치 않고 이중삼중으로 가중된다.

우리 농촌아이들에게는 건강한 자립터로 여성농민과 지역여성들에게는 다정한 쉼터로 더 나아가 농촌에 새 희망을 불러 일으키고 교육문제로 이농하는 이유를 삼지 않도록 농민들에게 신기운을 북돋을 수 있는 산산이 되기 위해 오늘도 내일도...

새로운 출발

## 새싹들의 방, 영아전담보육시설로 바뀌었습니다

김동준 · 인천 새싹들의 방 교사

여성들의 사회적 활동에 따라 안심하고 영아들을 맡길 수 있는 어린이집을 만들자는 뜻이 모아지면서 지역에서 활동하는 자모들과 1989년 6월 영아보육의 절실한 요구에 힘입어 선생님들과 '새싹들의 방' 어린이집이 인천시 서구 가좌동에 만들어졌습니다. 최초의 영아보육시설이 생기면서 얼마(현 '예슬'), 새싹들이 각 지역에서 생겨났습니다.

선생님들의 희생과 자모들의 헌신적 모습으로 새싹방은 어렵지만 아기들의 보금자리로 커졌습니다. 하지만 운영하면서 제정의 어려움이 커지면서 자모들과 선생님들

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을 시작하면서 '새싹방 걱정모임'도 만들었습니다.

1990년 '걱정모임'에서는 아이들과 선생님들이 재정 걱정없이 좋은 환경과 질 높은 서비스를 어떻게 하면 제공할 수 있을까 고민을 하면서 교사들 인건비 지원이 되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습니다. 우선 자모들은 새싹방 재정 상태와 설립취지와 공동운영의 형태를 자료화하여 1차 구청장님 면담을 하였습니다.

구청장님 면담을 통해 자모들과 선생님들은 힘을 얻고 여기서 끝내지 말고 가정복지와 국장님을 면담하고자 요청하였습니다. 국장님께서는 새싹방의 민주적인 운영방식에 관심을 표하면서 어려운 점을 도와 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때까지 인천에서는 영아탁아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조차 없었습니다. 이에 몇몇 영아보육시설에서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영아보육의 활성화를 위해 지원 내용과 근거를 제시하는 요구서를 구청에 제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97년 올해 3월부터 미흡하지만 영아전문 보육시설로 지정되면서 교사 2인 인건비를 지원해주기로 하였습니다.

새싹방에서는 자모들과 선생님들이 우리들의 힘으로 영아보육시설을 지킨 것을 축하하는 자축연을 열려고 합니다.

앞으로는 아이들에게 흙과 물을 만지면서 자랄 수 있도록 마당이 있는 공간을 마련하는 것이 우리들의 작은 꿈입니다. 이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새싹방 화이팅'을 외쳐주세요.



육아일기

## 유빈이의 첫 생일을 보내며

나은미 · 고양시 오손도손애기방 교사

유빈이가 세상구경을 시작한지 어느새 12개월이 지났습니다. 엄마와 아빠는 별 탈 없이 무럭무럭 자라는 유빈이가 얼마나 대견한지 모릅니다.

되돌아 보면 짧기만한 1년인데 유빈이에게는 엄청난 변화가 있었던 시간들입니다.

3킬로그램, 47센티미터의 조그마한 몸이 9.5킬로그램, 75센티미터로 자랐습니다. 울음으로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는 것이 전부였는데, 이제는 다양한 감정표현은 물론이고 몇 개의 단어들을 말하고, 노래도 따라 부르며, 흥겨우면 몸까지 흔들어댑니다. 이불 밖으로 머리만 내놓고 누워서 눈만 깜빡였는데 이제는 "엄마!" "아빠!" "이모!"를 부르며 여기저기 따라다니며 온갖 참견을 하느라 바쁘답니다.

엄마, 아빠에게도 지난 1년은 가슴 벅찬 하루 하루였으며, 이제는 초보딱지를 떼어도 된다는 자신이 생겼답니다.

불면 날아갈까, 만지면 부서질까 안아주는 일만 해도 조심스러웠는데 이제는 거꾸로 들고 흔들기도 하며 놀아줄 만큼 아기를 다루는데 익숙해졌습니다. 유빈이가 울면 도대체 왜 우는지 몰라 허둥졌는데 이제는 웅얼거리는 소리, 이런저런 행동 등을 듣고 보기만 하고도 유빈이가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릴 만큼 눈치도 늘었습니다. 자다가도 몇번씩 깨어나 숨은 잘 쉬고 있는지 살펴곤 했는데 유빈이보다 먼저 잠들기도 하고, 혼자 일어나 놀고 있는 유빈이를 보고도 "우리 딸은 효녀야."라고 중얼거리며 다시 잠을 잘 만큼 대담해졌습니다.

엄마와 아빠 중심의 생활이 유빈이 중심으로 바뀌었고, 이런저런 행동이 유빈이에게 미치는 영향을 생각하며 도를 닦는 마음으로 행복한 가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자세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단조롭기만 하던 우리 가정에 변화의 바람과 즐거움을 몰고 온 유빈이의 탄생은 어떤 기념일 보다 큰 의미를 가집니다. 욕심 많은 엄마는 유빈이의 첫 생일을 특별하게 보내고 싶었습니다. 유빈이가 태어난 사실 자체를 축하하고, 건강하게 속속 자라라는 바람을 전해주고, 유빈이가 잘 자라도록 지켜보고 도와 준 모든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는 날로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이런저런 이유로 가장 광범한 방법으로 유빈이의 첫 생일 잔치를 마련했습니다. 백 여명의 손님들로 북적대는 가운데 어리둥절해 하는 유빈이를 데리고 정신없이 보냈던 생일잔치에 아직도 미련이 남습니다. 유빈이를 핑계로 어른들끼리 즐겼던 하루였다는 생각에 유빈이에게 미안하기도 합니다.

유빈이가 태어난 바로 그날, 유빈이가 세상에 나오기 위해 엄마와 고생했던 그 순간들을 떠올리며, 유빈이에게 그 상황을 이야기하며 정말로 사랑한다는 말을 해 주었습니다.

첫 생일을 보내고 엄마는 유빈이를 보는 것이 조금 편해졌습니다. 젖 대신 밥을 먹이고, 손빨래 대신 세탁기로 빨래를 합니다.

일년을 참고 견딘 끝에 얻게 된 이 여유, 물론 유빈이와 함께 즐겨야겠지요?

## 세상읽기

"쌀 보내면 군인들 먹어서 전쟁이나 할텐데 뭐할라고."  
"000가 정치를 잘못 해서 벌 받는거여."  
"미국여자가 테레비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로 굶어죽어간다."  
"밥지만 애들이 불쌍해서..."

## 굶음과 허상

위양자(본회 부회장)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필요하면 속여 돈을 걷고 마음대로 쓰는 정부의 거짓말에 속아 지금 동포에게 절실한 때에 우리는 북녘동포들의 굶주림과 질병, 죽음을 방관하는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

한달쯤 전인가. 더 뽕나 싶다. 평소 에 밥 한끼를 굶으면 평생 찾아먹을 수 없다면서 아이들에게 밥이 보아이니 군것질 하지 말고 꼭 밥을 먹고나서 다른 것을 먹더라도 먹으라고 강조하던 남편이, 눈물이 나서 참을 수가 없다며 북한동포돕기에 우리도 어떻게 해보자고 했다. 그래서 큰 아이(9살)와 작은 아이(7살)에게 북한의 실상에 관해 나온 신문과 잡지를 보여주며 우리 가족도 도와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를 이야기했다. 아이들은 하루 용돈에서 100원씩을 안쓰고 모아서 보내기로 했다. 그래서 요즘은 매일 용돈을 받으면 100원부터 저금통에 넣고 쓰는 버릇이 들었다.

우리 가족이 이런 합의를 실천할 즈음 군산에서도 시민단체들이 함께 북한동포돕기운동을 하기로 했다. 내가 나가고 있는 한글학교도 교사회의와 운영회의를 거쳐 함께하기로 결정이 나

서, 교사인 나는 1만원을, 운영위원인 남편은 2만원을 아껴 내기로 했다.

우리 가족이 한달동안 아껴 모을 수 있는 돈은 3만 6천원 정도다. 사실이 돈은 외식 한번 안하면 되는 돈이기도 하지만 북한 어린이 7명을 한달동안 먹여 살릴 수 있는 거금이기도 하다.

오른손이 모르게 해야 하는 이 이야기를 부끄럽게도 하는 이유는 북한동포들이, 어린이와 노인들이 굶어죽고 병에 걸리고 있으니, 우리 동포가 먹을 것이 없어 굶어 죽어가고 있으니, 한민족인 우리가, 통일을 하고 싶은 우리가 도와서 살려보자는 말이 그리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는 현실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 하는 안타까운 마음에서다.

우선은 가장 밭 벗고 나서야 할 정부가 4차회담 운운하며 팔짱만 끼고 있으면서 창구도 민간에게 열어놓지 않고 있는 답답한 정

치현실이 그렇다. 더욱이 안타까운 것은 배굶는 자식 앞에 둔 부모 심정을 가장 잘 아는 우리 어머니세대들의 외구심이다.

군산의 한글학교는 40대부터 80대에 이르기까지 주로 여자라서, 큰딸이라서, 먹고 살기도 힘들어서 배우지 못해 한이 맺힌 분들이 오셔서 한글과 기초적인 산수를 배우는 곳인데, 이곳에 다니시는 어머니들도 북한동포돕기에 기꺼이 응하시리라 생각하고 이야기를 꺼냈다가 너무 놀랐다.

"쌀 보내면 군인들 먹어서 전쟁이나 할텐데, 뭐할라고."  
"000가 정치를 잘못해서 벌 받는거여."

"미국여자가 테레비 나와서 그러는데 정말로 굶어죽어간다."

"밥지만 애들이 불쌍해서..."

비난도 동정도 없었다. 하도 안타까워서 '95년에 3차례나 홍수가 나서 그렇게 됐고, 우리도 해마다 홍수 나면 집집마다 학교마

다 수재의연금 걷어서 도와주지 않는나, 수해 입으면 그게 한해 지나면 싹 극복되는 문제가 아니라 몇 년 걸려야 원상복구가 된다는 등 여러 이야기를 하는 가운데, 정부가 수재의연금 걷어서 수재민한테는 한 톨도 안준 얘기며 평화의 댐 만든다고 코흘리개 돈까지 걷어서 000씨가 떠먹은 것까지 버라별 이야기가 다 나왔다.

정말 정치얘기 안하고 어머니들의 넓은 마음에 붓물을 물려고 했는데 언제 이렇게 정치의식이 높아졌는지, 북한에 가는 항상 정치권과 정부에서만 해서인지 결국 정부얘기가 나오고, 북한정부도 밥지만 현정부도 못 믿으니 북한동포돕기성금을 안내고 싶은 마음이 든단다.

어쩌라, 그러면 그냥 굶어죽게 내버려 둘까? 할 수 없어서 우리 아이들이 이야기를 팔았다. 어머니들세대야 전쟁도 겪고 배고픔도 겪어서 마음이 멀어져 통일이 어렵지만

지금 어린것들과 북한의 어린것들이 컸을 때는 통일을 해야 할 것 아니냐. 그러려면 지금 굶어죽게 생겼을 때 먹을 것 나눠 먹어야지 나중에 목숨 살려준 은혜를 갚기 위해서라도 서로 친해질 수 있고, 혹시 북한이 전쟁하고 싶은 마음이 조금 있다가라도 없어질 것 아니냐 등등 정말 절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했다.

이렇듯 북한동포돕기 얘기를 할 때 선뜻 그래야지 하는 사람은 몇 안되는 것 같다. 어떤 30대는 우리 앞날이 어떨지 모르는데, 우리 식구 먹고 살기도 힘든데라고 한숨을 돌리기도 한다.

은국민은 요즘 청문회라는 말을 한번쯤 들었을 것이다. 그리고 청문회 방송때는 "아이들은 따라하지 마세요"라는 자막이 나가야 한다는 모씨의 말에 동의할 수 있을 것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피땀 흘려 벌어들인 돈을 잘못 써 그 대부분의 노동자들을 더욱 살기 어렵

게 만들어버린 000와 관련자들과 현정부가 한 거짓을 보면서, 우리 국민은 또 한번 속고 있다.

자신들의 집권을 위해 필요하면 북한이 홍수를 일으킬지도 모르니까 평화의 댐을 만들어야 한다고 속여 돈을 걷고 수재의연금을 걷어 마음대로 쓰는 정부의 북한에 대한 거짓말에 속아, 지금 동포애가 절실한 때에 우리는 북녘동포들의 굶주림과 질병, 죽음을 방관하는 죄를 지을지도 모른다.

이제 우리는 정부가 정권창출과 유지를 위해 거짓되게 만들어진 허상을 펼쳐버리고 참된 동포애로, 아무리 미운 자식이라도 품안에 품는 어머니 마음으로 발한끼 나누는 실천을 하자. 한 번 볼까 두 번 보면 정이 더 들고 밥 한술 보다 두술 나누면 정이 더 든다고, 많이 나누면 나눌수록 좋은 밥!!!

탁아소별곡

## 아기자람터에서 있었던 일

### ☺ 이야기 하나 - 시계는 정말 어려워!!

연꽃선생님 : 지금 몇시지?

천희 : 6시, 12시예요.

(작은 바늘은 6에 큰 바늘에 12에 가 있는 상태였다)

연꽃선생님 : !!!...

### ☺ 이야기 둘 - 우산이에요

솔방울선생님 : 얘들아 우리 손으로 신을 만들어 보자.

선생님을 따라 아이들이 뾰족한 삼각형 신을 만든다.

솔방울선생님 : 성규는 무슨 신이니?

성규 : 백두산이에요.

지은 : 높은 산이에요.

재욱 : 황열산이에요.

그런데 앞에서 열심히 신을 만들고 있던 성훈이가 불쑥 하는 말.

성훈 : 선생님 저는요. 우산이에요.

### ☺ 이야기 셋 - 한얼이는 왜 머리카락이 없을까?

저녁에 부슬부슬 비가 내렸다.

성규와마 : 지금 내리는 비는 산성비이기 때문에 맞으면 대머리가 돼.

성규 : (굴뚝히 생각하더니) 얼마 한얼이도 산성비 맞아서 대머리 됐나?

(그 당시 한얼이는 머리를 뽁뽁 깎고 있었다)

### ☺ 이야기 넷 - 돌고래선생님 오줌 썼다.!!!

돌고래선생님이 실수로 물 컵을 쏟았다. 그래서 바지가랑이쪽을 버려 다리를 벌리고 서있는데 이때 미진이 들어와 이 광경을 보게 되었다.

미진 : 민주야 돌고래선생님 오줌 썼대이.

민주 : 돌고래선생님. 오줌 썼어요?

돌고래선생님 : 오줌이 아니고 물이야. 선생님이 책상 위에 있는 물컵을 쏟아서 그래. 하지만 아이들은 못 믿겠다는 듯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쳐다본다.

### ☺ 이야기 다섯 - 왕거미의 위력

날씨가 좋아 황령산에 갔다. 가는 길에 나무가 비스듬히 쓰러져 있다.

성훈 : 선생님 나무가 넘어 졌어요.

돌고래선생님 : 왜 나무가 넘어졌을까?

성훈 : 거미가 밀었어요.

돌고래선생님 : 거미가 그렇게 힘이 세니?

소라 : 왕거미가 얼마나 힘이 센데요.

### ☺ 이야기 여섯 - 공주는 외로워

아침에 중간방에서 온진이가 "공주는 외로워"하니까.

성훈 : 아이다 왕자가 외롭다.

연꽃선생님 : 왕자가 왜 외로워?

성훈 : 공주를 못 만났잖아요.

### ☺ 이야기 일곱 - 크레파스의 비밀

솔방울반이 크레파스로 그림 그리기를 하고 있었다. 현영이도 열심히 그림을 그리더니 잠시 후 불만스러운 표정으로 이렇게 말을 했다.

현영 : 선생님! 크레파스가 만나와요.

(현영이는 흰 스케치북에 흰 크레파스로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모처럼 한가한 일요일 오후, 제법 따뜻한 햇볕을 맞으며 집 앞길가로 나가 앉았다. 일본이라는 곳 자체가 낯선 곳이지만 이사온지 얼마 안되니 더 생소한 동네 풍경이다.

"도고 잇테 구루노?"

"마루에 가서 가이모노하고 오는 길인데, 화분에 물을 주시는가?"

어, 이상하다. 일본 말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말 같기도 하고, 좀 자세히 들어보니 나이가 꽤 드신 할머니 두 분이 이런 저런 말씀을 나누고 계셨는데 아마도 두 분은 재일동포 할머니들 같았다.

"그럼, 잇구와."

"사요나라."

가만히 보고 있던 나는 반가운 마음에 시장바구니를 들고 지나가는 할머니에게 물었다.

"할머니, 어디사세요?"

그런데 할머니는 아무런 대답도 없이 얼핏 미소를 비추며 지나갔다. 철십이 가까운 나이까지 반은 일본말이고 반은 한국말, 그래서 어느 나라 사람도 제대로 알아들을 수 없는 자기들만의 말을 쓰고 사시는 1세 할머니들. 그러기에 지난 세월 사실은 그 어느 곳에서도 자기의 목소리를 제대로 낼 수 없었던 분들이었을 것이다.

좀 궁금한 마음이 생겨 화분에 물을 주시던 할머니네 집 앞으로 가 살펴보았는데 문패는 3元이라는 일본 이름이 새겨있었다. 아마도 한국에서 오셨지만 일본이름을 쓰고 사시는 것 같았다.

사실, 1920년 이후부터 일본에 건너와 이제 3세, 4세가 되는 재일 동포들은 극적인 한국이나 조선을 갖고 있지만 이름은 일본식으로 쓰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이 주변은 재일동포들이 많이 살고 있어 집집마다 걸린 문패에서 우리에게 익숙한 김, 이, 박 성씨(姓氏)를 자주 볼 수 있지만 어떤 것은 김씨라도 김산(金山)이나 김천(金川)이라는 두 글자 성이고, 부산(釜山)이나 서원(西原)이라는 자기의 본을 따서 문패에 적은 것도 쉽게 눈에 띈다(발음은 일본식으로 한다). 그렇지만 전

혀 근본을 알 수 없는 일본 이름을 쓰고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게 현실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왜 한국사람인데 일본식 이름을 쓰는 지 이해하기 어려웠지만 일본이라는 사회의 특수성과 한국인에 대한 역사적 배타심 등이 어쩔 수 없이 그런 상황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점차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다. 우리나라 사회도 유난히 자민족주의가 강하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지 않는 생김새는 비슷하지만 내가 모르는 말을 쓰고 내가

먹지 않는 음식을 먹는 다른 나라 사람들은 좀처럼 받아들여지기 어려운 곳이 일본이라고 한다. 될 수 있는 대로 비슷하게 보이고 사회의 상식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환영받는 집단주의적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나타내는 바탕인 이름도 일본식 이름이 아니고서는 그가 속한 지역사회나 학교에서도

따돌림을 각오해야 하고 직장을 얻기도 어렵기 때문에 일본식 이름을 쓰도록 은연중에 강요받는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에서 태어난 재일 동포들은 조국의 호적에 올리는 본명이 있고 일본 사회에서 쓰는 일본식 이름, 그렇게 이름을 두개는 가지고 있다.

타의에 의해 자기를 찾을 수 없는 이름으로 평생 불리게 된다는 것은 어떤 것일까. 자기의 민족과 이름에 대한 갈등은 사춘기의 재일동포들은 누구나 겪게 되는 열병이라고 한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성을 찾고 강요된 사회 분위기를 바꿔보려는 많은 동포들이 일본 사회에서의 자기 자리를 찾기 위해 우리는 생각할 수 없는 차별을 이겨내며 애쓰고 있다.

주권을 가진 내 나라 대한민국에서 온 나는 아직 잘 이해할 수 없지만 나라 잃은 식민지에서 온 사람들이기 때문에 받아야 했던 1세들의 박해와 고통은 반세기가 넘어서는 지금까지도 그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어두운 굴레를 씌워 살게 하는 것 같다.

서 오사카에서 온 소식...

## 내 이름은....

변미양 · 본회 회원, 일본 오사카 거주

우리들의 목소리

## 부듯한 휴가를 보내면서

지연(수원 용기종기어린이집 교사)

'보육'이 뭘지도 모르고 친구 따라 시작한 보육교사 생활도 어느덧 7년을 맞이하게 되었다. 지치기도 하고 관성적으로 변해버린 나의 모습에 질리기도 하고 뭔가 새로운 변화를 가지고도 싶고 해서 휴가를 신청하게 되었고 꿈에도 그리고 그리고 기다렸던 휴가를 받았는데...

하고 싶은 것이 너무나 많았다. 원도 한도 없이 잠만 3박4일간 싹껏 자 봐야지, 재정적으로는 무리가 되겠지만 그래도 아직 혼자일 때 배낭 메고 여유롭게 여기 저기 떠돌아 다녀봐야지, 배우고 싶었던 것도 배워 봐야지, 만나고 싶었던 사람들도 만나 봐야지 등등...

그런데 간단하게 생각했던 어머니의 병환은 점점 더 악화되어 나는 휴가를 받자마자 어머니를 간병하게 되었다. 물론 너무나 아쉽게 되었지만 한편으로는 얼마나 다행스러운지 모른다. 내가 휴가를 받을 수 없을 때 어머니가 아팠다면 얼마나 안타까웠을까. 또 이렇게 어머니와 같이 오랜 시간을 함께 할 기회가 다시 있기는 힘들 것이라고 생각하니 마음이 평온해졌다.

처음엔 힘들어서 아무것도 생각할 수도 없고 무엇을 한다는 것도 엄두가 나지 않았다. 그러나 점차 익숙해지면서 나는 생각할

시간들을 조금씩 가지게 되었다.

어린이집에서 함께 하였던 아이들과의 일들, 은근히 개성이 강한 교사들과의 많은 기했던 일, 힘들었던 일, 슬펐던 일들, 평상시에는 그만두고 싶었다가도 가지만 하면 아무 일 없다는 듯이 다시금 활동을 할 수 있게 해주던 수련회와 MT, 천차만별의 사연을 가진 부모들의 사연들 등을 되돌아 생각하다 보니 벌써 아이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그리워진다.

내가 원하는 대로 지낼 수 없는 휴가가 되어버리긴 했지만 그리 길지 않은 시간을 보내는 동안 벗어나 바라봄으로서 공간에 아니 틀에 갇혀서 혹 넓게, 깊게 생각하지 못하고 불안스러워 하고 짜증스러워 했던 나의 잘못된 행동을 알게 된 뜻깊은 시간이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집의 아이들과 나의 동료들에게 미안하고 고마운 마음이 든다.

일본 장기연수도 어머니의 병이 중해지면서 너무나 부담스럽고 갈등스러웠다. 그러나 연수준비를 하느라 아침에 잠깐이나마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간병하느라 갇혀서 좀 답답한 생활을 하는데 작은 활기를 얻게 되어서 오히려 얼마나 고마운지 모른다. 비록 어머니의 병이 완치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갈 것 같아서 마음 한구석이 무겁지만 남은 시간 서로 노력하면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그래서 처음에는 도와주고 추천해준 동료들이 잠시나마 원망스럽기도 했으나 지금은 너무나 소중하고 다시 없는 경험을 할 수 있게 해준 동료들에게 감사하고 싶다.

다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을 가진 것만으로도 나의 휴가는 잘 보내지고 있다는 생각이 든다. 남은 시간도 잘 지내고 다시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돌아가야지! 기다려주시 바랍니다. 나의 동료들이여! 나의 아이들 이여!

## 보육계 풍향

### 장애아동을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놀이치료 상담실 <새싹교실> 제2회 보육교사의 밤

제목: 유아 및 미취학 장애아를 위한  
신체활동 프로그램  
대상: 10개월 이상의 유아 및 미취학  
아동으로서 전신지체, 신체지체  
등의 증상을 가진 아동  
강사진: 서울대학교 김광호 교수와 서  
울대학교 특수체육 전공교사  
장소: 계동집랜드(계동사4층)  
강남구 역삼동 772번지  
기간: 3개월 단위로 학기운영  
주2회-매주 월, 목  
오후 5:00-6:00  
모집인원: 12명  
프로그램 및 등록문의: (02) 559-5183-5

새싹교실은 동구종합사회복지관(부산광역시 동구 범일6동 1542-1)의 전문 상담기관으로서, 정서적, 행동적, 언어적인 문제를 가진 아동을 대상으로 장애아동상담실과 놀이치료실을 운영하고 있다. 접수상담후, 상담시간이 정해지면 놀이치료는 치료자와 아동이 1대1로 이루어지며 주1회 50분을 원칙으로 한다.

전화상담 및 예약:  
(051) 633-3367-9  
상담시간: 9:00-17:30  
(월-금)

### 공동육아연구원 영역별 전문과 제11회 국제건강산업 정 강좌 개설 박람회

<인형극>  
일시: 매주 화요일 오후 7시-9시  
장소: 서교동 남은 어린이집  
내용: 동화구연과 인형극, 풀체극, 인형극놀이, 가면놀이

일시: 5월 23일-5월 26일  
장소: 한국종합전시장 태평양관  
주최: 한겨레신문사, 한국국제전시회

<특수교육>  
일시: 매주 수요일 오후 7:30-9:30  
장소: 성산동 우리어린이집  
내용: 장애아의 특성과 대응방안, 행동측정 평가방법, 프로그램 만들기  
문의: (02) 3471-0606(공동육아연구원)

전국민보련 유럽연수  
일시: 10월경(선착순 30명)  
장소: 유럽 4개국  
(프랑스, 독일, 스웨덴, 이탈리아)  
문의: 서울시민보련  
(796-1096)

### <좋은 신간안내>

####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

-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의 위음/내일을 여는 책 펴냄/270쪽/7,000원

5월, 아이들의 선물을 사기 전에 내가 먼저 읽어야 할 책  
5월, 제자들의 눈을 보기 전에 선생님이 새겨야 할 원칙  
5월, 아이들의 문제를 찾기 전에 우리 사회가 갖춰야 할 상식이 한권에 담겨 있습니다.

어린이·청소년의 권리 연대회의가 엮은 「아이들의 인권, 세계의 약속-유엔 어린이·청소년 권리조약을 중심으로-」에는 조약에 대한 이해를 돕는 4개의 논문과 조약의 이행 상황을 짚어볼 수 있는 자료가 담겨 있습니다.

#### <주문처>

내일을 여는 책  
전화: 707-3833~5 팩스: 707-3835  
우편요금은 출판사가 부담하여 보내드립니다. 전화로 책을 주문하실 때는 입금날짜와 입금하실 은행을 정확히 알려주시면 됩니다.  
국민은행 201-24-0527-002, 예금주 황덕명

## 소식과 소식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창립이사회

사단법인을 준비하고 있는 한국보육정보연구소의 창립이사회가 4월 7일 오후 5시 여성평화의 집 지하강당에서 열렸다. 이사진으로는 김연명(상지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박주현(변호사), 지은희(여성단체연합 상임대표), 장미경(전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한국소비자연맹 춘천지부 사무국장), 정희연(현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소장), 최현숙(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김종래(카톨릭대학 사회복지학과 교수), 남미영(현 지역사회복지협의회 회장), 이기범(숙명여대 교육학과 교수)님이 선임되었다.

이사회에서는 그간 연구소 법인설립 경과보고, 가칭

‘(사) 한국보육정보연구소’ 정관 채택, 사업계획과 재정계획의 승인이 있었다. 이후로 이사진보감과 감사 및 이사장 선임을 위한

논의가 되었다.

### 한국보육정보연구소 보육시설 개원설명회

1997년 4월 24일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는 올해로 제3회를 맞고 있는 개원설명회를 개최하였다. 민간·가정보육시설 개원설명회에는 29명, 보육시설 운영사례 발표회에는 35명, 직장보육시설 개원설명회에는 15명이

참석하였다.

보육시설 운영사례발표는 영아전담시설인 금천구의 ‘새터어린이집’ 남미영원장과 방과후 보육을 시도하고 있는 강서구의 ‘햇빛어린이집’ 오경의원장의 발표가 있었다.

최근 복지부에서 양적 확충계획이 마무리되고 수도권 지역의 보육시설이 확충된 상황에서 보육시설 개원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데다 얼마전 유아교육개혁안이 발표되면서 일반인들의 보육시설 운영에 대한 불안감의 반영으로 예상인원(각 프로그램당 50명)보다 참석인원이 적었다. 이후로는 현재 시설 운영자나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더 필요하리라고 본다.



## 보육아동 건강관리 위한 의료·보육인의 만남

4월 19일 세종문화회관 소회의실에서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감좌와 토론회 있었다.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가 인도주의 실천주관을 맞아 실시한 이번 행사는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를 위한 실천방안을 모색하고자 마련되었다. 제안과 논의를 통해 이후 어린이집에서 건강담당교사 두기, 건강일기 쓰기, 주치의 확보하기 등의 실천방안이 제시되었고 보육인과 의료인이 협력하여 건강교사 교육, 보육시설 아동의 건강관리 프로그램을 개발 등의 과제를 함께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 보건복지부 가정복지 국장 초청간담회

4월 4일(금) 보건복지부 초청간담회가 있었다. 본회의 남미영 회장, 최순옥 사무국장, 정희연 연구소장과 전국민간가정보육시설연합회 회장단이 참석하였고 복지부에서는 김명숙 가정복지국장, 신현수 아동복지과장을 비롯 아동복지과 직원들이 함께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그동안 보육사업에 있어서의 민간의 역할과 지탁연 활동의 의미 등을 공유하고 아울러 우리나라 보육정책의 방향 등에 대한 제안의 자리가 되었다.

## 일본 히로시마 보육소 보육교사 연수

4월 19일부터 23일까지 일본 히로시마지역 애육원보육소의 원장선생님과 보육교사 2인이 본회로 연수를 왔다. 연수단 일행은 수원 웅기종기어린이집에서 숙식을 하며 웅기종기어린이집, 울망출판어린이집, 어깨동무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인 과천 청사어린이집, 공동육아재미난어린이집을 방문, 견학하였으며 관광일정으로 민속촌을 찾기도 하였다.

본회는 일본 오사카 이쿠노지역과의 오랜 교류 경험으로 별탈없이 연수를 치렀고 이번 연수를 계기로 히로시마와의 지속적인 교류를 약속하였다.

##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간담회

4월 2일(수) 오전 11시부터 국회의사당 의원식당에서 국회 여성특별위원회 초청 여성단체장 간담회가 있었다. 여성특위 위원들과 한국여성단체연합 산하 단체장들이 함께 오찬을 하면서 각 단체의 활동소개와 여성특위의 활동을 공유하는 간담회로 본회에서는 남미영 회장이 참석하였다.

## 지역소식

### 부산보육교사회

\*3월 23일 살기강습회가 있었다.

교사 재교육과 일반교사 만남의 장으로 기획된 강습회가 이번으로 네번째를 맞았다. 주제는 '국악으로 우리 가라의 신명감을 알고 아이들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로 당일 사람들이 적게 모여 속살렸지만 교육은 아주 좋았다는 후문. 교육부의 과다는 노력을 여실히 볼 수 있는 행사로 국악이론과 민요, 춤, 대동놀이 등을 했는데 감사와 교육부원이 만나 노래를 정하고 춤도 만들고 노래 녹음도 사키며 우리도 평가 하면 전문적인 것까지 담아낼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볼 수 있는 기회였다.

인원 동원이 안된 데에는 홍보 기간이 짧고 시기가 적절치 못했던 점도 있지만 우리가 일반교사를 접할 수 있는 통로가 한정되어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이었다. 우리가 일반교사들과 만날 수 있는 통로를 찾는 데 더욱 노력하고 한번 찾은 사람은 우리 회원이 될 수 있도록 사람관리를 더 열심히 하자는 결의를 모았다.

\* 4월 19일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와 이웃의 건강을 위한 약사회에서 아이들 건강에 대한 감좌가 있었다. 감사는 해운대성심병원 소아과 전문의 김해경 씨로 선생님들의 질문공세로 시간가는 줄을 모르는 가운데 열

띤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 4월 20일 보육교사회 봄나들이가 있었다. 장소는 봉도사. 주문한 도시락 먹고 봉도사 경내 돌아보고 간식 먹으며 조용히 쉬다 돌아왔고 모두들 정말 잘 쉬었다는 반응.

### 봉천지역위원회

봉천지역위원회에서는 '인형극'소모임을 구성중이다. 구성원은 봉천지역의 현직자원봉사 활동가(전공 3, 4학년 학생)들과 구자활 그리고 교사 2인으로 꾸릴 예정이고, 교사회모임에서 연구소모임을 만들어 집중연구를 하려고 한다. 연구소모임은 생활공동체모임, 바깥공동체모임, 역할놀이공동체모임이다.

### 남부보육교사회

4월 월례회의를 5, 6일 양일간에 걸쳐 MT를 가졌다.

이날 나눈 이야기는 주로 지탁연 중앙과 지역에 대한 문제제기가 많았는데, 정보가 늦은 점과 중앙의 움직임이 보이지 않고 개인회원의 관리가 안되고 있는 점이 지적되었다. 또한 우리는 보육운동의 선도자이며 비관세력이라는 의미가 현재 많이 줄었고 사안에 대한 발빠른 대응을 하지 못하고 있는 점과 보육교사회가 우리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지 등에 관한 토론이 활발히 되었는데 문제제기만 많았고 해결점들은 논의되지 못해 아쉬움을 남긴 MT였다. 이는 임원진들의 준비 부족, 무책임성, 회원들의 비주체적 자세

때문이라는 평가를 해준다. 하지만 남부교사들이 1박2일 동안 잘 놀고 잘 쉬고 왔다는 후문.

### 인천보육교사회

인천보육교사회는 한달간 활발한 활동을 벌였는데 우선 신진교사교육을 진행중에 있고, 제2회 스승의 날 자축연 및 신진교사 인준식이 예정되어있다. 이날 행사는 1부 스승의 날 기념식과 2부 소모임 축하마당, 3부 참석자 즉석 노래자랑, 4부 기념품 전달식을 갖는다. 작년에 이어 올해에도 1년동안 아이들을 보호하고 교육하느라 수고한 우리 교사들의 날로 우리 스스로가 스스로를 축하하며 좋은 교사가 되기 위한 다짐을 하며 함께 나누고 즐기며 먹는 재미있는 시간이 될 것으로 확신한다. 또한 5월 11일에는 전직교사모임을 가질 예정인데 '평생보육인'의 모임으로 만들려는 의지가 충만하다.

## 사람들

### 결혼을 축하합니다.

남부의 차윤희선생님(새터 어린이집)이 4월에 결혼을 하셨습니다. 뒤통게나마 축하드립니다.

### 수상을 축하합니다.

남부 다우리어린이집의 오연환선생님이 구로구(지방

자치단체에서 주는) 모범교사로 선정되어 수상을 하십니다.

수원 울망출판어린이집 전경숙선생님이 수원도지사가 선정한 모범교사로 추천되어 수상을 하십니다. 보육교사로서 큰 영광이라 여겨지며 온몸으로 수상을 축하드립니다.

## 연합회 4월 일자

- 2/국회 여성특위 간담회 참석
- 4/복지부 가정복지국장 간담회 참석
- 7/집행위원회
- 중간간부 훈련 준비모임
- 연구소 법인설립 이사회
- 8/편집회의
- 11/일본연수자 사전모임
- 재교육소모임
- 14/집행위원회
- 17/정책개발위원회 모임
- 19/인의협 건강교육 공동개최
- 히로시마 보육교사 방문
- 22/히로시마 보육교사 출국
- 24/연구소 보육시설 설명회
- 25/연구소 직장보육시설 설명회
- 일본연수자 사전모임
- 재교육소모임
- 26/중간간부 훈련
- 27/유아교육 개혁방안에 관한 내부 토론회

■■■ 편집부에서 ■■■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네 아이들'이 많이 늦어졌습니다. 원고 도착도 늦고 정리할 무렵 복지부 답변서가 오는 관계로 꼭 실어야 했기에 늦어졌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잔인한 4월!

4월엔 정말 바빴습니다. 교육개혁위원회 사안, 중간간부 훈련, 북한여성들기운동 등 하루하루가 아까울 정도로 시간이 빨리 지나갔습니다. 갈수록 더 바빠질 것이고 일할 사람은 적고 걱정입니다. '독자들의 자발적인 원고보내기 운동'을 하면 어떨까요?

♣자료회비를 받았습니다

1년 구독 : 유정은, 김미현, 김정희, 현영숙, 평경숙, 지규남, 안희영, 손인자, 신혜숙  
6개월 구독 : 전복희, 도은정, 김운연

구독기간이 마감되어 재구독을 원하시거나 구두신청후 회비를 미납하신 회원님들께서는 빠른 시일내에 '우리네 아이들' 계좌번호로 자료회원 회비를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금 후 연합회 사무실로 전화 확인해 주시는 것 잊지 마시구요.  
특히 본인 아닌 타인명이나 단체명으로 송금하실 때에는 필히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회원 여러분의 귀한 글을 기다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삶이 담겨져 있는 글이나 소재를 받습니다. 보내주신 원고가 채택된 경우 작은 기념품도 드리니 '우리네 아이들'을 아끼시는 많은 회원님들의 참여가 있기를 바랍니다.

♣회원배가운동에 동참하여 주십시오

'우리네 아이들'을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전하고자 자료회원 배가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주변에 아이들과 함께 생활하시는 분이 있으시면 권해주세요.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받아보시려면...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는 보육사업에 종사하는 많은 보육시설종사자와 관심있는 분들을 위해 탁아활동의 길잡이 '우리네 아이들'을 매월 정기적으로 발간합니다. '우리네 아이들'은 보육과 관련된 각종 연구결과, 영유아 교육의 이론 및 실제프로그램과 보육사업을 수행하는데 도움이 되는 정보들을 싣고 있습니다.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에서 정기발간하는 '우리네 아이들'을 정기구독하시기 원하시는 분은 본 연합회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사업에 힘쓰시는 모든 분들의 노력에 감사하는 뜻으로 좋은 내용, 알찬 정보를 가지고 계속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 자료회원이 되시면

- 1) 소식지 '우리네 아이들'을 매달 우편으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 2) '우리네 아이들'의 본 회에서 제작하는 각종 자료집 및 책자에 대한 정보를 신속하게 받아보실 수 있으며 회원가격에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3) 본 회에서 주최하는 여러 교육과 행사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 자료회원 신청은

- 1) 본 연합회 사무국으로 전화연락을 주시거나 우편으로 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 2) 우편발송시 '우리네 아이들'을 받아보실 분의 성함과 직업, 나이, 주소 및 전화번호를 기입하시고 어떻게 '우리네 아이들'을 보시게 되었는지 적어주시면 좋겠습니다.
- 3) 신청후 회비는 다음으로 송금해주시면 됩니다.
- 4) 송금 후에는 반드시 연락을 해주십시오.

다 음

신청접수: 100-391

서울시 중구 장충동1가 38-84 여성평화의 집 3층  
지역사회탁아소연합회 '우리네 아이들'편집부 알  
☎ 275-8505~6

송금구처: 국민은행 068-21-0479-041 정희연  
(6개월 구독 16,000원 1년 구독 30,000원)

# 어린이집 · 놀이방의 상해, 화재보험 어떻게 선택하십니까?



지역사회복지연구소 후원  
**한국보육정보연구소**  
Korea Daycare Information Research

**늘푸른대리점**

## 보육시설전문대리점이 충실히 안내합니다.

- 보육시설이 위험을 발견하고 방지대책을 세워 재물손해·인명손해를 미리 방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 보육시설이 가입해야 할 보험의 자세하고 정확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합니다.
- 각 시설의 상황과 조건에 맞는 적절한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 안전한 보육환경, 적절한 보험선택, 수익금의 보육사업재투자율 목표를 출발했습니다.
- 보육사업 전문가로 구성되어 보육시설에 실속있는 도움을 드립니다.

## 아동사고!

5,775원으로 최고 1억 1천만원 보상에  
작은사고에서 큰사고까지!

상담전화

TEL. 271-1547~8  
FAX. 271-1548  
BP. 015-943-3954

늘푸른대리점

● 어린이집 · 놀이방 정보록 PC용 디스크 제공  
● 한국보육정보연구소에서  
● 보육시설의 보험가입과 상담편의를 위해 개설했습니다.

| 구분               | 보험가입금액                             |                        | 보험료     |         |         |                                  | 비고                                                                              |
|------------------|------------------------------------|------------------------|---------|---------|---------|----------------------------------|---------------------------------------------------------------------------------|
| 원아상해손해<br>(1인당)  | 사망, 후유장애                           | 1,000만원                | 2,800원  | 1인당     | 5,775원  | 배상책임보험 학교<br>경외자 특약요율의<br>80% 적용 |                                                                                 |
|                  | 의료실비                               | 100만원                  |         |         |         |                                  |                                                                                 |
| 배상책임손해<br>(1인당)  | 대인 1인당 1사고당                        | 1억원                    | 2,915원  |         |         |                                  |                                                                                 |
|                  | 대물 1사고당                            | 1,000만원                |         |         |         |                                  |                                                                                 |
| 교직원상해손해<br>(1인당) | 사망, 후유장애                           | 1,000만원                | 6,510원  |         |         |                                  |                                                                                 |
|                  | 의료실비                               | 100만원                  |         |         |         |                                  |                                                                                 |
| 재산손해             | 건물 및<br>일가비용<br>(보험가입금액<br>100만원당) | 화재손해 기본보험료(화재요율 8% 적용) |         |         |         |                                  | 화재보험 일반물건<br>화물 적용요율의<br>80% 적용<br>(화재보험 일반물건<br>기본요율)<br>× (1소형인<br>합중요율) 140% |
|                  |                                    |                        | 1급      | 2급      | 3급      | 4급                               |                                                                                 |
|                  |                                    | 1등지                    | 6,200원  | 9,800원  | 15,275원 | 24,225원                          |                                                                                 |
|                  |                                    | 2등지                    | 7,200원  | 12,485원 | 20,015원 | 31,265원                          |                                                                                 |
|                  |                                    | 3등지                    | 9,200원  | 15,215원 | 24,735원 | 39,000원                          |                                                                                 |
|                  |                                    | 4등지                    | 11,305원 | 18,200원 | 29,240원 | 45,050원                          |                                                                                 |

(늘푸른 대리점에서 추천하는 유아교육기관 종합보험)